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49호 【루계 제26223호】 주체107(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비상한 창조정신과 애국의 열정을 발휘하여 올해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총공격전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

각 지 당 조 직 에 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지금 각지 당조직에서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어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금속공업부문 련합기업소들에서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포성이 높이 울리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방송선전, 직관선전, 기동예술선동대활동 등을 보다 활력있게 전개하여 전투장들에 언제나 혁명적인 기백과 열정이 팍 차넘치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철강재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집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이 남김없이 과시되도록 하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현장방송, 출근길방송, 혁신자축하방송 등 다양한 형식의 방송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강선의 로동계급이 《강철로 당을 받들자!》라는 구호밑에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강철기둥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올해전투의 승리는 전적으로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석탄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탄부들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흑령탄광, 강동탄광을 비롯한 련합기업소 탄광들의 갱막장한복판에 자기 위치를 정하고 탄부들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그들이 알고싶어하고 듣고싶어하는것을 당정책에 립각하여 귀에 쏙쏙 들어가게 알려주고있다. 또한 갱, 굴진소대들사이 사회주의경쟁을 맹렬히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도 잘 짜고들어 12월 10일현재 련합기업소적으로 10여개의 굴진소대가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할수 있게 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화력단생산의 많은 몫을 맡고있는 제남탄광과 서창청년탄광에서 집중경제선동의 북소리가 기세차게 울려지도록 하는 한편 련합기업소의 모든 일군들이 덕성, 형봉, 남양탄광을 비롯한 들끓는 전투현장에 달려나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며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고있다.

전력공업부문 당조직들이 전력생산자들의 열의를 고조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박력있게 진행하고있다.

청천강화력발전소, 장진강발전소 당일군들은 전력생산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자기의 힘을 굳게 믿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을 더욱 깊이 심어주면서 그들이 발전소의 불비한 생산공정들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발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배심있게 진행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그리하여 청천강화력발전소의 기술자들은 3호보이라에 고온공기연소안정화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량의 중유를 절약하면서도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철도운수부문의 당조직들에서도 증송의 기적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평양기관차대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관차대안의 모든 수송전사들이 전세대들이 발휘한 투쟁정신, 투쟁본때를 그대로 계승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떨쳐나가도록 적극 추동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관차대의 모든 일군들이 수송전사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기관차의 실동률을 높이고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해나가도록 작전과 지휘도 빈틈없이 짜고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기관차대가 년간 화물수송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수송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도록 하고있다.

함흥모방직공장, 함흥제사공장, 함흥편직공장을 비롯한 함경남도안의 경공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의 역할을 높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 높은 증산성과로 빛내여나가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단위들에서 수백명의 3년분, 2년분, 년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이 떠올랐게 하였다.

이밖에도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금성뜨락또르공장, 2.8비날론련합기업소,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송성호뜨락또르공장, 평양속성계기공장을 비롯한 각지의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그 어떤 애로와 난관속에서도 순간의 주저와 탐보도 없이 줄기차게 전진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짜고들어 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기간에 자기 단위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고있는 각지 당조직의 화선식정치사업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 철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서 전진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세멘트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 12일까지 높이 세운 년간 세멘트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금지의 건재생산기지에서 전해진 혁신의 소식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해 드세찬 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는 온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당정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높은 증산실적으로 받들어갈 일념을 안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앙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줄기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기 위하여 련속공격전을 벌리고있는 대중의 투쟁열의를 계속 고조시켜나가고있다.

참모부에서는 세멘트생산과 설비정비보수를 계속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대책을 실속있게 세워나가고있다. 특히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원료, 연료보장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설비리용과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조국의 륭성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열의밑에 세멘트증산투쟁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타오르는 속에 련일 높은 실적이 기록되고있다. 년간계획수행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소성로와 분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중앙조종실의 조종사들은 세멘트생산에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설비들의 운전을 빌리고있는 대중의 투쟁열의를 계속 고조시켜나가고있다.

조합원료직장, 원료직장의 로동자들은 설비들의 점검보수를 실적으로 하는것과 함께 공정별에 따르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고있다.

공무직장과 주강직장을 비롯한 보장부문의 로동자들도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면서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려 매일 많은 량의 세멘트를 생산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과 삼청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내달릴 만만한 투지와 배심을 안고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화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석탄생산을 늘이고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전초병이 될데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에 더 높은 증산실적으로 보답할 일념안고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힘찬 투쟁에 의해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리 호 성

현지말씀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

원 산 구 두 공 장 에 서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몸소 일터에 찾아오시여 주신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맹렬한 돌격전을 벌려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그 기세로 계속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사상의 로문을 열고 인민들의 호평과 인정을 받는 구두를 더 많이, 더 멋있게 만들어내기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공장참모부에서는 형태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색이 고상하면서도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으며 가볍고 견고한 신발, 그 질이 높은 수준에 올라선 신발을 생산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더욱 박력있게 해나가고있다.

일터마다에서 나라의 신발공업을 주도하는 만아들공장의 영예를 빛내여갈 혁명적열정이 나래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10여건의 기술혁신안과 160여종의 새 제품을 내놓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이후 단 한주일동안에만도 종건의 실적을 훨씬 뛰여넘어 1만여켤레의 신발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재단작업반의 종업원들은 생산의 선행공정을 지켜섰다는 책임감을 안고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고 재단실수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천가를 줄이면서도 더 많은 구두를 생산할수 있게 하고있다.

사출작업반 종업원들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가치있는 창의고안과 기술혁신안을 내놓으며 신발창생산에서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갑피직장의 종업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무단히 높이고 집단주의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증산의 봉음을 힘차게 울리고있다.

제화직장의 종업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고 공정간 련계를 긴밀히 하면서 질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애쓰고있다.

도안실의 성원들도 신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은 도안실계를 잘하는것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신발도안들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일터에 모시였던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증산의 봉음을 세차게 울리며 신발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국 철

겨울철수송을 위한 철길집중보수 결속

철 도 운 수 부 문 에 서

철도성에서 겨울철수송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철길집중보수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철도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두달 남짓한 기간에 909개소에 1만4 115m의 얼부푸는 못없애기, 4 036개소에 1 002km의 열도광치기, 7 994조의 분기기보수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철길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고 렬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 규률을 강화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여 렬차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며 철도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철도성 일군들은 겨울철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철길집중보수전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능력있는 일군들을 각지 철길대에 내보내여 철길상태를 료해하고 구체적인 계획밑에 보수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각 철도국의 일군들은 철길원들의 정신력을 총동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이와 함께 철길대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알아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철길집중보수를 다그치도록 떠밀어주었다.

개천철도국아래 신의주철길대, 개천철길대를 비롯한 여러 철길대에서 로력조직과 기중구준비를 짜고들어 집중보수를 잘하였다. 특히 신의주철길대의 일군들과 철길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렸다. 이들은 렬차운행을 보장하면서 전투를 진행해야 하는 조건에 맞게 사전준비를 잘하고 단위시간에 최대의 마력을 내여 수백km구간에 대한 철길집중보수를 지난 11월말까지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청진철도국아래 청진철길대, 길주철길대의 일군들과 철길원들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철길집중보수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들은 기공구와 고착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면서 력량을 집중하여 담당철길구간의 얼부푸는 못없애기, 열도광치기, 분기기보수 등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양철길대, 양덕철길대를 비롯한 평양철도국아래 여러 철길대의 일군들과 철길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철길집중보수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담당구간의 철길상태에 맞게 보수계획을 빈틈없이 세운 이들은 중대, 소대간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며 철길집중보수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쳤다.

함흥철도국아래 함흥철길대의 철길원들도 작업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철길집중보수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렬차운행의 안전성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였다.

지금 겨울철수송을 위한 철길집중보수를 끝낸 각지 철길대의 일군들과 철길원들은 철길정상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 경 철

유기질비료생산에 력량 집중

자 강 도 에 서

자강도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다음해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사를 잘하여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자면 농사에 모든 력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농업부문 일군들은 올해농사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다음해 알곡생산목표를 보다 높이 세우고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시, 군들에서는 로력과 운반수단들을 유기질비료와 소석회생산에 집중하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너한개기와 건거름실어들이기, 부식토생산을 다그치고있다.

희천시, 시중군, 자성군, 고풍군, 초산군에서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희천시에서 흙보산비료와 유기질복합비료생산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시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흙보산비료와 유기질복합비료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있다.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온도보장대책을 세워 흙보산비료의 질을 보장하고있다.

고풍군과 초산군, 자성군에서도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군들에서는 뜨락또르와 무림소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도시거름을 실어들이고있다. 이와 함께 유기질복합비료와 흙보산비료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시중군에서는 유기질복합비료와 소석회생산전투를 벌리고있다.

군일군들은 소석회생산에 필요한 석탄을 넉넉히 마련한 기세로 협동농장들에서 소석회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도록 하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다음해농사차비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고있다.

특파기자 김 순 흥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수 풍 발 전 소 에 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수풍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전력생산을 정상화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집적으로 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이곳 일군들은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고있다.

발전소참모부에서는 생산단위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온영근무성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매일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일군들은 정치사업무대를 들끓는 현장으로 옮기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면서 기술자, 로동자들을 증산투쟁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1발전직장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직장에서는 효률적인 운전조작방법을 받아들이고 순회점검을 짜고들어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전기직장과 기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전력생산에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발전설비와 변전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다그치고있다. 수력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시추주입전투를 힘있게 벌려 한방울의 물도 새여나가지 않게 하면서 언제구조물에 대한 보수점검을 정상화하고있다. 공무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필요한 부속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발전소에서는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체의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발전설비와 변전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발전소의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102호발전기현대화를 다그치고있다.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이곳 전력생산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력생산의 동음은 높이 울리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도(직할시)과학기술위원회들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십건의 중점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과학기술력량을 총발동하여 새 기술연구도입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위원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로 30여개의 새 기술연구도입조를 조직하고 그들이 중점연구과제를 한가지씩 맡아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완성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그 과정에 전해법에 의한 탄산소다생산공정이 완비되고 탄산소다, 가성소다, 염산을 비롯한 10여종의 기초화학제품을 년간 수백t씩 생산할수 있는 또 하나의 자력갱생기지가 일떠서게 되였다.

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돌종이생산공정, 열선반사유리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지열교환기를 연구도입하였으며 군민발전소건설장들에 필요한 많은 량의 방동제와 감수제를 생산보장하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그리고 폭이 넓은 물실심는기계, 고속합사기를 비롯한 설비, 장치들을 자체로 설계제작하여 인공잔디생산능력을 훨씬 높인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20여개의 생산공정과 자력갱생기지를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도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평안북도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회망초를 종합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면서 우렁이유기농법을 도안의 농업생산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지력을 높여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식물성장촉진제, 미생물비료 등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를 현실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황해남도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도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참가밑에 전기를 쓰지 않고 물을 퍼올릴수 있는 수차식무동력뽐프와 풍력양수기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시, 군들에 일반화하도록 함으로써 고온현상이 지속된 올해의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는데서 그 생활력이 발휘되게 하였다.

또한 과학연구단위와의 련계밑에 경제적실리가 큰 흙정화제를 살림집건설과 도로건설에 도입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내밀어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밖에도 도(직할시)과학기술위원회들에서는 석탄가스화와 버려가스화에 의한 전기생산기술, 과수지, 파유리 등 폐설물의 재자원화기술, 교류접촉기에 의한 전기절약기술, 메탄가스생산리용기술 등 긴장한 전기문제를 풀고 원료, 연료, 자재문제를 해결하며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할수 있는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좋은 결실을 안아왔다.

뿐만아니라 산림복구전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이미 건설된 중소형발전소들의 정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등 현실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해당한 과학기술적대책을 따라세우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선진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현실에서 나서는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는 도(직할시)과학기술위원회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강 철 웅

정 론

장 군 님 생 각

1

그날도 백두산기슭에는 눈이 내리고있었다.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지연군을 이해에 세번째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깨우에 하많은 사연을 속삭이듯 정히 내리던 눈송이, 눈송이…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우리 장군님 밀림을 얼구는 혹한속에서 혹무이로단을 덮으시고 추운 고생, 매고픈 고생도 다 이겨내셔야 했던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은 성스러운 땅, 그이께서 그토록 념원하신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황홀한 자태를 드러내는 삼지연군의 설경을 바라보시는 우리 원수님의 심중은 얼마나 뜨거우셨으랴.

몇해전 11월에도 찾아오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보고 또 보시며 눈이 내리는구만, 장군님과 눈물속에 영결하던 날에도 눈이 내렸지,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살붙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그날의 가슴치는 격정을 뜨겁게 불러일으키며 오늘도 12월의 흰눈이 내리고있다.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이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영원한 인민의 어버이 우리 장군님에 대한 못 잊을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이 땅에 사연많은 12월의 흰눈이 소리없이 내려앉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은 나의 심장속에,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어버이장군님을 잃고 흘리운 나날에 우리는 보았다.

주체철이 쏟아지던 경사스러운 그 시각 평양하늘을 우러르며 《장군님! 주체철이 나옵니다.》 하고 목메여 아뢰이던 황철의 로동계급이며 거듭되는 실패와 가슴아픈 곡절속에서도 직접 연구종자를 주시고 걸음걸음 보살펴주시던 장군님 생각으로 피를 끓이며 세계적수준의 생물농약을 만들어낸 영웅과학자도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온정어린 물고기를 집집마다 한가득 받아안던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 마지막으로 수표해주신 물고기공급문건이 눈앞에 어려와 눈물을 흘리던 평범한 녀인들도 보았다. 미래과학자거리며 려명거리의 궁궐같은 집에서 행복의 노래를 부를 때면 이 땅의 찬눈비를 다 맞으며 달리던 그이의 야전차가 어려와 눈금이 찌릿이 젖어든다는 과학자, 교육자들, 땅이 꺼지게 주렁진 과일들을 보시려 그이께서 또다시 오실것만 같아 설렘으로 달리는 뜨거운 마음을 걷잡지 못한다는 고산과수종합농장 근로자들의 격정어린 모습도 보았다.

우리는 왜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장군님생각에 마음적시는것인가. 흐르는 세월속에 모든것은 잊혀진다 하였건만 어이하여 그이에 대한 생각만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그처럼 더더욱 강렬하게 불길치는것인가.

어버이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 그이께서 사업하시던 렬차집무실에서 해당 부문 일군들이 그토록 가슴치게 안아본 문건트렁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다시금 눈물속에 되새겨본다.

인민을 요람속에 재우시고 강행군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 심신의 고통을 고스란히 묻어두시며 밤새워 보고보시던 문건들이 가득히 들어있는 트렁크, 그것은 한평생 그이께서 스스로 짊어지신 만짐의 축도였다. 자신께서는 하루가 24시간밖에 되지 않는것이 안타깝다고 늘 외우시며 가방에 넘쳐나는 문건들을 집처들고 다니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인민들속에 나날이 커지는 가방이라는 눈물겨운 일화까지 전해졌건만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문건트렁크를 곁에 두신줄 우리 어이 알았으랴.

그이께서는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강대한 조국을 유산으로 남겨주셨건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긴것이 없으시였다. 오직 하나 있다면 그 눈물겨운 문건트렁크와 더불어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고동쳐야 하는가를 위대한 귀감으로 력력히 보여주신것뿐이였다.

과연 이렇듯 고결하고 위대한분을 추억할 때 우리 어찌 전사의 랑심에 대하여, 인간의 도리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수 있으며 그이의 품속에서 성장해온 자신의 삶을 헛되이 할수 있으랴.

철이 든다는 그 말은 결코 세상물정을 깨달은 자식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혁명을 배운 우리만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해나가는 길에서 보다 눈부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만큼 인생의 철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마음속에 우리는 철이 들었고 그만큼 강해졌다.

받아안는 모든 기쁨과 행복이 어버이장군님의 고생많은 한생과 맞바꾼것이여서, 때로 마음속에 피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장군님 이겨내시던 그 하많은 시련과 희생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는것이기에 자나깨나 인민은 그이를 생각한다.

장군님생각! 진정 그것은 이 나라 인민의 삶의 전부와도 같은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제나름의 생각을 안고 산다. 고향에 대한 생각, 혈육에 대한 생각, 자기의 운명과 래일에 대한 생각…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싹 채운 그 수많은 생각들중에 오직 우리 인민만이 심장속에 안고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장군님생각이다. 여기에는 인간세계의 그 어떤 생각들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신성한 의미가 있고 위대한 힘이 있다.

어버이장군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속에 못 전디게 사무쳐오는것은 무엇인가. 인류지성이 도달하지 못했던 그 숭고한 사상과 정신의 높이가 보인다. 강설과 혹한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와도 같은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보인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선히 떠오르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눈물겨운 화폭,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주는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가 절절히 울려퍼지는 속에 험준한 산발과 사나운 바다길로 이어진 선군장정의 영웅서사시적행로를 보여주는 거대한 춤물결이 온 경기장에 파도칠 때 솟구치는 눈물을 금치 못했던 인민의 심장은 무엇으로 세차게 고동쳤던가.

배경대에 뚜렷이 새겨졌던 《위대한 수호자》, 이 글발과 함께 후덥게 갈마드는 장군님생각이였다.

세계도처에서 세차게 휘날리던 붉은기들이 너절한 배신자들에 의해 퇴색되고 변색되어 맥없이 내려워진것을 두고 원쑤들이 기가 올라 사면팔방에서 미친듯이 덤벼들던 준엄하고도 험난한 그때 백두의 넋과 기상이 어린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나에게서 그 어떤 번화를 바라지 말라,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우리는 기어이 승리할것이라는 철의 신념을 선언하신 우리 장군님,

원쑤의 총구가 코앞에 도사리고있는 351고지와 1211고지, 판문점에로의 전선시찰의 길, 점채같은 파도가 배전에 사정없이 들씌워져 사진마저 남기지 못했던 초도의 풍랑길, 어제로 차를 미시며 한치한치 오르셨던 오성산의 칼바람길, 지동치듯 불어치던 강제의 눈보라길은 오로지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우리 장군님의 신념의 천만리, 의지의 천만리였다.

그이께서 헤쳐가신 그 모든 사생결단의 강행군길에서 주저앉을번 한 조국이 새로운 도약기, 강성부흥의 려명을 맞이했고 쓰러질번 한 인민이 백배의 힘을 가다듬으며 억경도 순경으로 만드는 영웅적배심을 키워왔다.

우리 다시금 자신에게 물어보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여 어느때나 어디서나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워하는가. 그이의 품에서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이 그리도 크고 누려온 행복이 그리도 자랑스러워서만이 결코 아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단매에 쳐갈길 무궁무진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들진해나가도록 떠밀어주는 장군님생각을 사랑과 행복에 대한 추억만으로 어이 다 말할수 있단 말인가.

지나온 7년세월에 우리는 참으로 거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자기 힘으로 눈부신 창조물들을 일떠세웠고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승리들중에서도 가장 귀중한것은 이 땅의 천만군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받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억세게 성장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방대한 발전소건설을 도자체의 힘으로 완공하는 자랑스러운 기적을 창조한 강원도사람들,

한두해도 아닌 오랜 세월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던 나날에 그들에게 힘을 줄것은 비오나 눈오나 철령을 넘으시던 우리 장군님생각이였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부르시며 조국수호의 길을 이어가시던 그이의 역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에 자신들의 마음을 비추어보며 순간의 답보도 몰랐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오늘은 또다시 여러개의 발전소건설을 통이 크게 밀고나가는 강원도인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닮은 인민의 신념, 인민의 정신적성장의 높이를 본다.

그 어디서나, 그 누구를 만나도 볼수 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버이장군님을 생각하면 새 힘이 용솟음쳤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대로 하면 만사가 다 풀리는 법입니다.

해마다 황홀한 거리를 건설하고 현대적인 병원과 공장들을 세워가며 눈부신 문명의 본보기를 창조하는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이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장군님생각, 그것은 신념의 불을 끊임없이 지펴주는 무한대한 열원이며 의지의 슴결을 더해주는 크나큰 동력이다.

우리 장군님을 생각하면 그이처럼 살려는 열망, 그이처럼 강해지고 그이처럼 승리하려는 각오가 더욱 억세여진다.

붉은 당기발과 함께 영생하는 구장함 233호 지휘관들과 해병들, 오직 하나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념원을 꽃피우는 길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백두산영웅청년정신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을 비롯하여 이 땅에 끝없이 태여나는 신념의 강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민의 참된 성장속에 수령의 위대한 영생이 있다는 진리를 새롭게 새겨안았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굳건한 신념을 주신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 장군님은 인민의 심장속에 길이 빛나는 영원한 태양이시며 운명의 하늘이시라고 우리는 긍지높이 말할수 있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커만가는 장군님생각, 이는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인민의 신념을 백배해준다.

동지에 대한 사랑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도 어기에서 시작된다.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단결의 위력, 억만금의 재부와도 바꿀수 없는 인민의 순결한 마음, 무적필승의 위용을 떨치는 조선의 국력도 장군님생각과 더불어 더욱더 굳건해지고있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장군님생각은 우리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주는 무한대한 힘으로 되는것이다.

이 세상에 이렇듯 신성하고 숭고한 생각, 영원한 힘을 안고 사는 인민은 없다. 그 위대한 힘이 있어 우리 조국이 강대하고 우리 사회주의가 아름다우며 우리의 미래가 찬란하다.

세계를 둘러보면 자기의 이름을 력사에 남긴 위인은 많아도 이렇듯 나라와 민족을 세계의 령마루에로 끝없이 떠밀어주는 영원하고도 강대한 힘을 후세에 남긴 령도자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사상과 령도로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분, 고결한 헌신과 희생으로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인민의 심장속에 굳건히 심어주신 절세의 위인을 영원히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은 무궁강대하고 우리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할것이다.

2

지난 9월 5만산발과의 회성을 장쾌하게 울린 어랑천발전소건설장,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규모가 제일 큰 팔향언제공사장에서 콩콩크리트치기량의 80%계선을 돌파하였다. 장포언제건설을 위한 1차가물막이가 끝난것과 함께 불과 몇달도 안되는 사이에 물길굴은 2900여m나 진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찾아오시며 완공의 날을 그토록 바라시였던 어랑천발전소건설을 더없는 중대사로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 례년에 없는 무더위에 먼길을 달려 찾아오시여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총발동하여 건설을 타그쳐 끝내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온 나라가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총돌격전에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실 때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우리의 심장에 세차게 고동친것은 무엇인가.

위대한 장군님 따라 걸어온 혁명의 길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곧바로, 끝까지 가리라!

붉은기는 달려야 휘날리듯이 수령의 유훈관철의 길을 한치의 드팀이나 탈선도 없이 오직 곧바로 끝까지 나갈 때만이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오늘의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서 다시한번 새겨보게 되는 심원한 진리이다.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그이와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가슴마다에 용암마냥 끓어번지는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중중첩첩 시련의 고비들이 막아설 때마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최고의 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더듬어보시면서 신념과 의지를 백배로 가다듬으시는 우리 원수님, 심중의 격정을 담아 장군님은 우리 마음의 영원한 지팽점이시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준다.

장군님은 우리 마음의 영원한 지팽점, 이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장군님의 뜻대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이다.

우리 원수님 가시는 길에는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이 빛나고 장군님의 뜻과 정이 흘러넘쳤으며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로 가득찼다. 그래서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를수록 위대한 장군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갈수 있음을 날에날마다 심장으로 절감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하여 절대로 덮어둘수 없으며 조건과 환경이 엄혹하다고 하여 추호도 미룰수 없는 지상의 요구인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천만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우리 원수님,

현대적으로 개건된 어느 한 공장을 돌아보시던 그날에도 그이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부터 찾으시였다.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헌신의 력사를 보여주는 한상한상의 사진문헌들을 보고 또 보시며 우리 원수님 하시던 그날의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것은 철의 진리이며 모든 승리의 담보라는것을 심장에 조아박고 투쟁하여야 한다. …

인민은 그이의 말씀속에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신념의 불길을 보았다.

우리의 투쟁과 생활의 모든 진리, 이룩할 승리의 모든 담보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 있다는것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령도를 따르는 길에서 우리는 죽어도 버릴수 없는 신념으로 간직하였다.

혁명은 곧 신념이라고, 신념으로 걷는 길이 혁명의 길이고 죽어도 버릴수 없는것이 혁명가의 신념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천근만근의 무게로 실려온다.

신념,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목숨보다 귀중하다. 평범한 인간을 견결한 혁명가로 키우는 삶의 자양분도 신념이며 조국과 인민앞에 언제나 떳떳하게 살수 있게 하는 마음의 기둥도 불변의 신념이다.

올해 또다시 전례없는 불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 이들의 심장속에는 몇해전 12월 찬바람부는 포구에 찾아오시여 이제 머칠 있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5돐이 되는 날이라고,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장군님을 생각하느라니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 밤 수표하신 수도시민들에 대한 물고기공급문건이 떠올라 오늘도 그 문건을 몇번이나 보고 또 보았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이 삶의 좌표마냥 새겨져있다. 하기에 그들은 한몸이 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물이 되여서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끝까지 결사관철하겠다는 투철한 각오를 안고 바다에 고기가 없다는 제배주의자들의 떡빠진 한숨소리를 만선의 힘찬 배고동소리로 눌러버리며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이는 새로운 어로신화를 창조하였다.

곧바로, 끝까지, 이는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엄숙한 요구이다. 세상천지가 열백번 변한다 해도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할 우리의 억센 신념이고 의지이다.

결코 총포성이 울리고 생사가 판가리되는 결전장에서만 신념의 진가가 검증되는것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공민들이 지켜선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강철로 당을 받들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힘찬 보폭을 내짚은 미더운 금속공업부문 로동계급이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인민들의 신발문제를 걱정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리며 이악하게 노력하여 흐뭇한 신발풍년을 마련한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당의 감자농사력명방침제시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감자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대흥단사람들과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면서 세형의 무궤도전차생산의 검증선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수도려객운수부문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도 위대한 장군님 따라 걸어온 길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끝까지 가고가려는 필승의 신념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서로 상반되는 리념과 제도의 대결에서 가장 심각하고 치렬한 격전은 신념의 대결이였다. 수천수만의 폭탄으로도 허물지 못한 신념이 보이지 않는 전파며 유혹의 바람에 의해 쩍이 우고 선대수령의 업적과 강대했던 나라의 존엄, 인민의 행복이 통째로 말살당하던 가슴아픈 참변을 우리는 결코 력사로만 생각지 않는다. 억만금의 재부로 번쩍이는 번화가들을 일떠세웠다고 해도 신념의 주추돌이 흔들린다면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고귀한 전취물이 모래성처럼 무너질수 있음을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얼마나 뼈아프게 실증해주는것인가.

단 하루의 앞날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오늘의 세계는 신념만이 미래를 내다보는 밝은 눈이며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길만이 강국에로의 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곧바로, 끝까지! 우리 신념의 핵은 바로 이것이다.

이 바람, 저 바람이 모질게 불어치고 지구의 무게를 초월하는 중압이 짓누른다고 해도 절대로 동요하거나 주저앉지 않으며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 우리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걸으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오직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념은 드놀지 않는다.

세태는 바뀌여도 절대로 변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신념이며 끝까지 가고갈 신념과 함께 빛나는것이 혁명의 승리이다.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질 사회주의강국의 새 아침을 가슴뿌듯이 맞이할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고 또 가는 투쟁의 길, 승리의 길이다.

반드시 승리하라!

이것은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나라 천만아들딸에게 하시는 절절한 당부이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대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간직한 우리의 승리는 절대불변의 진리이며 과학이다.

세계를 뒤흔드는 폭대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는 격동의 시대에 우리가 하루빨리 승리의 기발을 꽂아야 할 고지는 다름아닌 경제강국의 봉우리이다. 피는물의 바다를 두번이나 건느며 력사에 전무후무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친 그 기세로 더욱 힘차게 비약하여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충정의 보고, 최후승리의 보고를 드리자.

일심단결의 위력, 자력갱생의 보검으로 만난을 짓부시며 위대한 수령님 불려주신 우리의 붉은기, 위대한 장군님 지켜주신 우리의 붉은기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에 어서 빨리 더 높이 휘날리자.

사연도 깊은 12월과 더불어 2018년이 지불어간다.

눈물겨운 추억의 세계가 어제런듯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

하늘도 목놓아우는듯 폭설을 쏟고 쏟던 피눈물의 12월,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하던 그날을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우리 어이 잊을수 있으랴.

한평생 찬눈비 다 맞으시며 험한 길 가고가신 우리 장군님을 차마 눈덮인 길에 모실수 없어 솜옷이며 목수건을 펴놓을 때 인민이여, 우리는 그 길우에 천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명세를 새기지 않았던가. 눈발속에 멀어지는 장군님의 령구차와 더불어 어려오던 한목의 붉은 당기를 우리는 죽어도 버릴수 없는 신념의 기발로 간직하지 않았던가.

위대한 어버이의 참된 아들딸들이 자자손손 지켜가고 빛내여가는 이 땅에서 12월은 정녕 피눈물의 12월, 그리움의 12월로만 전해지지 않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걸어온 길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갈 명세로 불타는 신념의 12월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여, 장군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계신다. 언제나 태양같이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혁명의 길을 곧바로, 끝까지 가라고 고무해주신다.

눈이 내린다.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드놀지 않을 우리의 신념을 담아싣고 12월의 흰눈이 내린다.

김 철, 최 문 경

김 영 남 동 지 가

이딸리아인도주의협조단체 《싼떼쥐디오》 공동체 위원장일행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는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임빨리아초 마르꼬 이딸리아인도주의협조단체 《싼떼쥐디오》 공동체 위원장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외무성 부상 임천일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한 없 이 고 매 한 풍 모

위대한 평민의 모습

어느해 무더운 여름날 창성땅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한데 어울려 풀때기를 하시였다.

한 일군이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어 풀때기가 한창인 곳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이를 인츰 만나뵈올수 없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으나 그이께서 계신 곳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때마침 멀리에서 누군가가 한꺼번에 여러개의 풀단을 나르고있는 모습이 눈에 띄기에 장군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는가고 소리쳐 물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장군님이신줄 어찌 알았으랴.

그이를 뵈옵는 순간 일군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모습은 김일성종합대학시절에 자신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인들 마다하겠는가고, 인민을 위해 일하는것보다 더 훌륭한 일은 세상에 없다고 하시며 와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장에 기록한 자욱을 새기시던 위대한 평민의 모습그대로였다.

가장 존경하는 스승

어느해 겨울날 한 일군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민들의 료통문제를 풀기 위한 조언을 받으러 선생님들을 찾아가자고 하시며 뻐스정류소로 나가시였다.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줄을 서시여 뻐스를 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손님들과 운전사가 주고받는 이야기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기도 하시고 뻐스를 수리하는 로동자들을 찾으시여서는 그들의 의견도 들어주시였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밤이 훨씬 깊어서야 집무실로 돌아오시였다.

다음날 아침 그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한건의 문건을 받게 되였다. 긴장한 려객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진 문건이였다.

영문을 몰라하며 서있는 일군을 다정히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스승의 생각을 그대로 글줄에 옮겼을따름이라고 하시면서 어제밤에 만났던분들이 자신께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제서야 일군은 그이께서 조언을 받겠다고 하시던 선생님들이 바로 정녕한 인민들이였다는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였다.

본사기자 장 정 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519호 주체107(2018)년 12월 8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였으며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적인 다음의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한다.

평양공업대학
동평양제1중학교
선교구역 선교초급중학교
동대원구역 동신소학교
력포목장 1분장
만경대천세식당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자재상사
신양군산과실가공공장
녕원군송배전소
신양군산림경영소 청년양묘작업반
회창군 덕련협동농장 청년분조
안악군 안악고급중학교
안악군판개판리소
삼천과수농장 룡암제1작업반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정보기술연구소
사리원시 영광소학교
승호봉화피복공장
온파군광정사업소
함흥초등학원
요덕군 송도협동농장 제1작업반
신흥신려관
장진군 온덕원
고원철도상업판리소
단천청년기관차대 전동기중대
정평역
청진시 수남구역상업판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긍지 드높다

뜻깊은 올해의 격동적인 나날을 돌이켜보며

세차게 타오른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

우리 조국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뜻깊은 한해가 저물어가고있다.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전체 인민이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신심드높이 달려온 주체107(2018)년,

온 나라 인민 누구나 자기들의 일터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초선으로 여기고 당과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백절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비약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장엄한 투쟁과 승리의 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습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합니다.》

강철전선을 혁명적인 총공세의 앞장에 내세워준 당의 믿음은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곧 수령의 유훈관철전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결사의 의지를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그들은 주체의 붉은 쇠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로를 과감히 열어나갈 열의에 넘쳐 힘찬 돌격전을 벌리였다.

주체철생산을 위한 전투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산소열법용광로직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던 어느날 갑자기 산소취입관과 랭각함사이에서 쇠물이 쏟아져나왔다.

뜻밖의 정황앞에서 모두의 심장은 금시 멎는것만 같았다.

이때 로장과 작업반장이 로체쪽으로 성큼 다가섰다.

그들의 손에는 높은 압력으로 물을 내뿜는 고압관이 들려져있었다.

《오늘의 일분일초에 주체철생산전투의 승패가 달려있소.》

그러면서 어려운 일에 남먼저 몸을 내대는 그들과 함께 로체 2작업반의 전투원들은 결사의 각오를 안고 파렬구를 막기 위한 치렬한 전투를 벌렸다.

결사의 투쟁끝에 주체철생산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인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실현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것은 비단 김철만이 아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여러 주체화대상공사를 완공함으로써 100%우리의 기술과 연료, 원료에 의거하여 철강재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천리마의 고향 강선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혁명의 년대마다 강철증산성과로 당을 받들어온 전세대 로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고온공기연소식회전가열로에서 인발강관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굴지의 철생산기지들에서 련발적으로 솟려퍼진 주체화의 우렁찬 포성은 우리의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께와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드린 승리의 보고이며 강철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해갈 억척불변의 맹세였다.

이들뿐이 아니다.

여러가지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많은 농장, 작업반, 분조가 다수확단위대렬에 들어섰고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를 틀어쥐고 투쟁하여 수십개 농장이 모범축산농장대렬에 들어섰다.

삼지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돐이 되는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왔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른 속에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새로운 진실신화창조의 열풍이 휘몰아쳤으며 그 어디에서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맹렬하게 벌어졌다.

지난 4월말 216사단 성, 중앙기관려단 인민보안성련대 돌격대원들은 2개 호동의 소층살림집골조공사를 한달동안에 끝낼것을 결의해나섰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지칠줄 모르는 힘과 열정을 낳게 하였던가.

손바닥에 생긴 물집이 터지면서도 함마질을 멈추지 않는 한 대원에게 지휘관들이 이젠 좀 쉬라고 권고했을 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생각하면 이 한몸이 그대로 위훈의 별이 되여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빛내이고싶습니다.》

이것은 련대안의 전체 돌격대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그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을 심장깊이 새기고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수천㎥의 기초파기작업을 이틀동안에 결속하고 불과 며칠동안에 수만장의 블로크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배짱을 지니고 공사에 필요한 물도 자체로 보장하면서 끝내 결의한 목표를 점령하고야말았다.

하루하루의 실적이 당을 받드는 자신들의 애국충정의 높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과감한 돌격투쟁을 벌려 세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생산한 수도려객운수국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종자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나날에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는 신발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이 힘있게 벌어졌다.

우리 인민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고암-담촌철길,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강원도양묘장,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를 비롯한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다.

우리 인민이 뜻깊은 올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혁명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는 전투적인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리일으키시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이끄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단행하신 현지지도는 초강도강행군의 자욱으로 수놓아져있다. 례년에 없는 폭양과 폭열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안식처를 찾고있을 때 조국땅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찾으신 단위는 수십개나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굴의 공격정신과 애국애민의 대장정으로 하여 경제건설전반에 새로운 비약의 기상이 태동하고 혁명의 전진이 더욱 가속화된 의의깊은 한해였다.

올해의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사회주의길이 천만번 정당함을 심장으로 체득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이 땅우에 무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 진 욱
사진 본사기자 김 진 명

당중앙과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함께 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련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온 나라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격정속에 받아안던 때로부터 어느덧 날과 달은 흘러 한해가 저물어가고있다.

보람찬 투쟁의 나날속에 흘러간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우리의 가슴은 어찌하여 이렇듯 긍지로 부풀어오르는것인가.

불붙을 가리라 당의 부름에!

전체 인민이 이런 억척의 신념을 지니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사상과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잊을수 없는 한해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의 부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던가.

그들속에는 경성군 온포온실농장과 함경북도양묘장으로 자원진출해간 청진농업대학의 수십명 졸업생들도 있다.

례년에 없는 무더위속에서도 현지지도강행군으로 함경북도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도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을 일떠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그들의 가슴가슴은 과연 어떻게 고동쳤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하는 길에 나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리라.

바로 이런 지향을 안고 그들은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섰다.

어찌 이들뿐이랴.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로 더 잘 꾸릴 일념을 안고 이곳으로 자원진출해간 량강도안의 청년들과 어랑천발전소건설장으로 솟선 달려간 함경북도안의 수많은 청년전위들…

당의 구상과 의도를 현실로 꽃피우는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이런 미더운 청년대오가 있어 이 땅 가는 곳마다에서는 불가능을 모르는 자랑찬 투쟁기풍이 높이 발휘되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대한 각지 인민들의 지원열기 또한 뜨거웠던 한해였다.

송림시녀맹위원회와 청진시송평구역, 남포시 천리마구역녀맹위원회안의 수많은 녀맹원들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가 파철모으기, 지대정리 등을 진행하여 철강재생산에 적극 기여하였다. 어느 하루 빠짐이 없이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는 그들속에는 꽃이 불련한 녀성들도 있었다.

여기 일은 걱정말고 치료를 받으라고 등을 떠미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 말은 얼마나 절절했던가.

《철이 많아야 부강조국건설이 다그쳐지지 않겠나요.》

이런 마음을 안고 전국각지의 녀맹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금속공업부문을 적극 지원하였다.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을 비롯하여 각지의 인민들이 석탄전선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나섰고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어 많은 학교와 분교를 훌륭히 꾸리고 더 좋은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꽤뜻한 진정을 바쳐왔다.

당중앙과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함께 하며 투쟁과 위훈속에 날과 달이 흐른 2018년,

올해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울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는 충정의 천만리오가 있어 이 땅에 최후승리의 날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라는것을 소중한 진리로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건 일

온 나라에 숲을 이룬 애국자들의 대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슴벅찬 승리와 변혁으로 수놓아진 이해의 년륜이 자기의 들기를 마감하고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각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애국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온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쳐나고있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어머니당은 자기의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조국을 받들어가는 참된 인간들에게 이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도록 하였다.

그들중에는 수천척지하막장에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 말건 탄광증축장 지배인 권영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학과학기술교류소 소장 림창호, 안주철도화학공장 지배인 박룡범, 희천온하리북공장 지배인 장이영희동무를 비롯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

그들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결한가.

위대한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이런 숭고한 삶의 지향을 안고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은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명세를 안고 동해안지대농사에서 해마다 높은 알곡소출을 낸 다수확분조장도 있다.

안악군종축장 지배인 권영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학과학기술교류소 소장 림창호, 안주철도화학공장 지배인 박룡범, 희천온하리북공장 지배인 장이영희동무를 비롯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

그들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결한가.

위대한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이런 숭고한 삶의 지향을 안고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은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명세를 안고 동해안지대농사에서 해마다 높은 알곡소출을 낸 다수확분조장도 있다.

지난해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축하전문을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은 더 높은 광석증산실적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불같은 일념을 안고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맹렬히 벌려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5개년전략고지에 남먼저 승리의 기발을 휘날림으로써 조국청사에 특기할 혁혁한 위훈을 세웠다.

고경찬영웅소대의 영웅적위훈에 화답하여 수많은 단위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떨쳐나선 정안남도안의 석탄공업부문 청년전위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의해 40여개 청년돌격대들이 3년분, 2년분,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일당기 완수하였다.

애국과 헌신으로 보람차고 창조와 변혁으로 긍지높은 한해를 추억해보며 우리 인민이 심장속에 아로새기는것은 정녕 무엇인가.

그것은 평범한 인간들도 시대의 영웅,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삶을 빛내이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며 귀중한 조국을 위해 몸과 맘 다 바쳐갈 불타는 지향과 맹세이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애국충정으로 강성번영의 새 아침, 휘황한 래일을 힘차게 마중해갈것이다.

본사기자 정 영 철

백승의 보검—군민대단결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자랑스러운 한해가 저물어가고있다.

온 한해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전구마다에서 뜻과 정을 함께 해온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부름이라면 불붙을 가리지 않고 산악같이 일떠나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천만군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있는 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입니다.》

세상에 들도 없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되고있는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과 동해의 명사십리를 따라 각양각이한 건축물들이 키돋움하며 솟아오르고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가보면 누구나 심장으로 느끼게 되는것이 있다.

군민대단결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전하지대본이며 백승의 보검이라는것이다.

뜻깊은 올해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는 속에 발휘된 미풍은 얼마나 고귀한것인가.

여기에 단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다.

지난 7월 희천강발전소 일군들이 구내와 주변환경을 일신시킬 목표를 세우고있으면서도 어려가지 조건으로 그 집행을 드세게 내밀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된 어느 한 인민군부대의 지휘관들은 중요대상건설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또 하나의 일감을 스스로 맡아 해제낄 결심을 내리게 되였다.

그들은 낮에는 언제공사를 지휘하고 저녁이면 허천강발전소 1호발전소의 주변을 일신시키기 위한 전투계획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언제공사현장에서 10여리 떨어진 1호발전소까지 혼합물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고 전투력있는 구분대를 시공력량으로 선발하였다.

이런 만단의 준비밑에 1호발전소주변을 훌륭히 변모시킨 그들은 3호발전소 취수구주변의 옹벽공사까지 진행하였으며 공사기간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 야외에 천막을 치고 숙식하였다.

그때 발전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많은 후방물자를 안고 끊임없이 찾아왔지만 부대장병들은 이렇게 한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본분을 다할뿐입니다.》

그와 동시에 허천강발전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는 이런 강렬한 지향이 자리잡았다.

모든 일을 인민군대처럼 알뜰하고 짠지게!

인민들스스로가 터치는 감탄속에 인민군대의 참모습이 어려있고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인 인민군장병들의 혁명적투쟁기풍과 일본새로 살며 일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열의가 비껴있는것 아니랴.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열병식 참가자들이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수도의 거리들을 통과하던 모습을 오늘도 잊을수 없다.

자동차행렬이 지나는 연도의 곳곳에서 파도처럼 이는 꽃물결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서로서로 인사를 보내며 혈연의 정을 나누는 모습은 사회주의수호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생사운명을 함께 해갈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였다.

지난 10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명령지시라면 불붙을 가리지 않고 따라나서는 천만군민의 절대불변의 의지와 단결된 힘이 있기에 이 땅우에는 비단 해안관광지구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 인민의 소유물들과 새로운 행복이 멈춤없이 일떠서고 창조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렇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세계가 보란듯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일심단결된 힘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유 광 진

조선의 참모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입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의 벗들이 더욱 격정은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벅차게 새겨주고있다.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그리움의 꽃바다, 흠모의 꽃바다를 펼친 제22차 김정일화축전장.

《이렇게 한가지 꽃으로 일색화된 꽃축전은 처음 보았다. 모든 전시대의 꽃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사랑과 정을 지닌 조선인민의 순결한 마음과 숭고한 정신세계를 감동깊이 느끼게 되였다.》

《오늘의 꽃축전은 조선인민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준 축전이다.》

이것은 외국의 벗들이 축전장을 돌아보고 감상록에 남긴 글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이 어린 불멸의 꽃축전장에서 외국의 벗들은 한목소리로 조선인민을 더 잘 알게 되였다고 진정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9월의 경축행사는 또 얼마나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켰던가.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경축행사! 완전무결하다.》, 《신비경의 극치로 환상의 넋을 앗아간다.》, 《일심단결은 조선의 상징》, 《조선의 위대함과 강대함을 목격하였다.》…

각국의 언론이 특별소식, 특대소식으로 연방 보도하던 경축행사에서는 격찬의 목소리가 끝없이 흘러나왔다.

우크라이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대표는 조선의 열병식이 세계적으로 제일 성대하고 위력하다는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이다. 전체 인민이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데서 조선사회의 불패성을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고 공화국의 70년력사를 알게 되였다고 진정을 토로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중국산서청년대표단 단장은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걸작이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여 천변만화한 배경대를 이루어내고 그처럼 황홀하고 방대한 예술작품을 펼쳐놓은것만 보아도 조선인민의 높은 정신세계와 집단력에 대해 잘 알수 있다. 또한 수령에 대한 신뢰심, 열렬한 조국애, 평화를 지향하는 인민의 감정을 진실하게 느낄수 있었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의 관광객들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시작을 앞두고 진행된 배경대의 간단한 훈련동작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국제적인 개폐막행사에서 보아오던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보았던것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고나서 그들은 약속한듯 토로했다.

조선의 일심단결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았다!

…

뜻깊은 올해에도 세계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진 격정의 목소리, 그것은 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진하는 우리 인민과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부러움이고 경탄이였다.

글 본사기자 신 현 규
사진 본사기자 리 충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7돐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회고무대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7돐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회고무대 《장군님 그리는 마음》이 1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 청년동맹일군들,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교직원, 원아들, 시인의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혁명소설랑독과 녀성독창 《장군님생각》으로 시작된 회고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면불휴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고 독창적인 사상과 령도로 주체적청년운동의 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황산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희동지, 교육위원회 국장 윤희섭동지,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 분조장 정영옥동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부원 김광수동지, 희령혁명사적관 관장 리순실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나라의 어엿한 일군으로 성장한 나날들을 가슴뜨겁게 회고하였다.

이야기와 노래 《장군님 따르는 마음》에서 출연자들은 온 나라 학생들의 교복과 신발문제에 이르기까지 마음쓰시며 친어버이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격정에 겨워 말하였다.

아버지장군님의 뜨거운 축복을 받아안은 리축복, 리경연, 고후희, 박건의학생을 비롯한 출연자들의 감동깊은 이야기가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더해주는 속에 무대에는 남성4중창 《매혹과 흠모》, 이야기와 노래 《그리움은 끝이 없네》가 펼쳐졌다.

216사단 백두산영웅청년려단과 속도전청년돌격대 지휘판들을 비롯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온 조선청년운동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고 하면서 당의 령도따라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념원을 이 땅우에 꽃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떨쳐갈 맹세를 다짐하였다.

합창 《우리는 맹세한다》,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로 끝난 회고무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일본의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일본 전 부수상 가네마루 싱의 가족과 일조우호련대 군마현민회의 대표 쓰노다 기이찌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14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국강산에 끝없이 울려퍼지는 수령영생의 노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충정이 넘치는 시가작품들 지난 7년간 수많이 창작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절절해지고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크나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일떠선 우리 인민은 지난 7년간 절세의 애국자,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충정으로 가슴 뭉클하며 수많은 시가작품들을 창작하여 수령영생의 철리를 력사에 더욱 숭엄히 아로새겼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였습니다.》

민족의 어버이를 뜻밖에 잃은 애도의 나날 각지 작가들과 근로자들이 창작한 한편한편의 작품마다에는 눈물과 격정없이는 대할수 없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그리움이 넘쳐흘렀다.

시 《일떠서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이여》, 《아전차는 멎지 않았다》, 가사 《명사들은 장군님을 못 잊습니다》 등은 사회주의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해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초강도강행군길을 헤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로고를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 신념과 의지가 시 《우리에겐 장군님 계시는 세월만 있다》,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사 《장군님은 인민들과 함께 계시네》, 《천만년 빛나리 장군님 그 위업》을 비롯한 작품들에서 세차게 분출되였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은 추모의 100일기간에도 많은 시가작품을 낳았다.

주체101(2012)년 새해의 첫아침 가요 《조선의 힘》이 온 나라, 온 세계에 힘차게 울려퍼진데 이어 영원한 그리움을 안고 절세위인의 유훈을 받들어갈 인민의 충정의 마음이 반영된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그리움은 끝이 없네》 등의 송가들이 련이어 나왔다.

만만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성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쳐주신 혁명의 대성인을 그리며 평범한 로동자, 농민, 청소년학생들도 장시 《그이는 선군조선의 힘이시다》, 시 《우리 장군님 걸으신 길》을 비롯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누리에 빛나는 주체의 태양을 심장으로 노래하였다.

각지 출판사들에서 추모시집 《장군님세월은 영원하리라》 등 많은 시집이 출판되여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인민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백옥같은 충정을 다 바쳐갈 철석의 의지를 반영한 시와 노래들이 끝없이 울려퍼졌다.

서사시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그리움의 강산에 흰눈이 내린다》, 《영원한 애국의 불길》 등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한평생을 가슴뜨겁게 되새겨주고있다.

꿈결에도 장군님을 잊을수 없어 참된 의리의 날과 달을 이어가는 인민들의 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반영한 가요 《인민은 일편단심》, 《인생의 영광》, 《그리움의 흰눈송이》를 비롯한 시대의 명작들이 천만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였다.

룡남산의 아들딸답게 태양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일념으로 가슴 뭉클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학생들이 시 《룡남산의 소원》, 《장군님께서 바라보신다》, 《그이는 우리의 스승이시다》 등 수때편의 시가작품을 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서사시 《태양의 력사는 무궁하리라》가 발표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영원무궁할 장군님의 세월이라는 진리를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었다.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도 무강조국건설의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눈보라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담은 시초 《12월의 흰눈이 내린다》, 시 《천만년 세월이 가도》, 가사 《인민의 그리움은 영원하리》를 비롯한 많은 작품이 창작되였다.

조국강산에 뜨겁게 메아리치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노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반드시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워갈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주며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함흥남새전문농장 중심마을 준공식 진행

함흥남새전문농장 중심마을이 훌륭히 일떠섰다.

선경의 새 모습을 펼친 마을에는 아담한 문화주택들과 농업과학기술보급실, 문화회관, 탁아소, 유치원 등이 그윽하게 갖추어져있다.

당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건설된 함흥남새전문농장 중심마을 준공식이 14일에 진행되였다.

도안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 건설자들, 함흥시와 함흥남새전문농장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함경남도당위원회 위원장 김성일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곳 농장을 찾으시여 함흥시민들을 위한 남새생산기지로 전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으며 관리운영과 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색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함흥남새전문농장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도와 함흥시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건설을 힘있게 다그친데 대하여 말하였다.

설계가들은 집체적지혜와 기발한 착상으로 건축형성안과 설계를 책임적으로 완성하였으며 현판단위들에서 각종 건설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 돌격대원들, 근로자들이 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성실한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치였으며 물심량면의 지원으로 완공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뜨거운 은정을 가슴에 새기고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해마다 남새와 알곡생산을 늘이며 마을을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의 보금자리,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며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승고한 사명감을 안고 다음해농사차비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마을을 돌아보았다.

이날 흥겨운 농악무가 펼쳐지는 속에 농업근로자들이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였다.

따뜻한 품속에서 30대 력사학박사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김운동무의 생활에서

《나어린 〈력사학자〉》,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1995년 10월 22일부 당보에 실리였던 류다른 기사의 제목이다.

력사분야의 뛰어난 소질과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 어제날의 그 중학생, 그가 바로 올해 38살에 력사학박사가 된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교원 김운동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의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적극 키워주어 남다른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앞으로 나라의 과학기술과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밀한 지식인가정의 막내아들로 태여난 김운동무는 문필가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릴적부터 책읽기를 무척 즐겨하였다.

특별히 좋아한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책들이였다. 명인전, 사화집, 력사소설로부터 점차 《조선통사》, 《조선전사》, 《력사과학》 등 전문서적들까지 그의 탐독대상이 되였다. 력사학자가 되고싶은 꿈과 더불어 그는 한문공부도 직심스럽게 하였다.

자그마한 손에 두툼한 력사책을 들고 때없이 찾아오는 그에게 학교의 교원들은 물론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강사, 학술연구성원들도 자기의 력사지식을 성의껏 베워주었다. 때로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때로는 혼자서도 론잘 오군 하는 나어린 《력사학자》를 김일성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의 유명한 력사학자들도 정을 담아 신동이라고 부르며 엄격한 스승이 되고 친근한 《벗》이 되여주었다. 사회과학원 원장이며 우리 나라의 권위있는 력사학자였던 원사 교수 박사 김석형선생은 자기가 집필한 도서에 직접 수표까지 하여 나어린 《력사학자》에게 기념으로 주기도 했다.

이렇게 한해 또 한해가 흘러 그는 11살때에 벌써 중세시기 우리 나라 력사와 관련한 글을 여러건이나 써냈고 12살때에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차넘치고 깊은 력사지식이 엿보이는 《고대일본문화는 조선의 영향하에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글을 써내여 력사학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귀중한 민족고전의 하나인 《삼국사기》의 원문을 척척 번역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나어린 《력사학자》의 한문지식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 자랑을 안고 소년은 어서 커서 력사학박사가 될 큰 꿈을 담아 또박또박 쓴 편지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어린 그의 편지를 몸소 보아주시였으며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 대표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축복속에 재능의 꽃망울을 터치며 그는 《고조선에 대한 연구》, 《우리 나라 고대, 중세국가들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국가》를 비롯한 여러건의 글을 련속 내놓았다.

이렇게 중학교를 졸업한 김운동무는 당의 사랑과 은정속에 소원대로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에서 공부하게 되였다. 성스러운 룡남산기슭에서 희망의 나래를 펼치며 력사학을 전공하는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발표하신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의 사회경제적성격을 옳게 해명할데 대하여》,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노예소유자국가형성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해명할데 대하여》** 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참으로 고귀한 지침으로 되였다. 그 주옥같은 글줄들을 뼈와 살에 새기며 그는 조선의 력사학자가 지녀야 할 자세와 립장을 재달았고 한생토록 변치 않을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었다.

하기에 그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의 출발점, 뿌리라고도 말할수 있고 학문적으로는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분야로 되여있는 고대사에 대한 연구에 스스로 한생의 뜻을 두었다.

그는 판록있는 력사학자였던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유철선생의 지도밑에 수년간에 걸치는 고심어린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마침내 고대사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순장과 순장제도에 대한 가치있는 론문을 발표하고 20대에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는 우리 나라 고대사에 대한 연구를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심화시켜나갔다. 누가 알아주건말건 즐거치게 이어가는 탐구의 그 길에는 남모르는 마음속고충도 있었고 자신을 이겨내기 힘든 그런 순간들도 없지 않았다. 그때마다 힘과 고무를 준것은 당조직의 믿음과 집단의 기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속에 크게 한 일도 없이 현대적으로 일떠선 려명거리의 덩실한 새 집의 주인이 된 그날 그는 룡남산의 력사학자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시금 자각하였다.

김운동무는 드디여 조선고대노예제도와 관련한 연구론문을 력사학박사학위론문으로 훌륭하게 완성하여 내놓았다.

우리 나라 고대사를 정립하는데 이바지한 그의 연구성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노예소유자국가형성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해명함에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는 큰걸음을 내짚을수 있게 되였다.

젊고 쟁쟁한 고대사전문가에게 력사학계는 기대와 선망이 탐긴 속하를 보내주었다.

어제날의 꼬마《력사박사》, 오늘의 30대 력사학박사인 김운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결코 저의 소질이나 재능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저야말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입은 행운아가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우리의 사회주의,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육 빛내여가시는 고마운 사회주의의 따뜻한 품이 저를 키웠습니다.

조선의 력사학자로서 제가 걸어야 할 진정한 삶의 길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력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라고 했다.

우리의 주인공이 온넋을 기울여 탐구하는 력사가 존엄높고 강대한 우리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그려보게 한다면 우리는 그의 어제와 오늘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성장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슬하에서 보람찬 탐구의 길을 이어가는 새세대 지식인들의 창창한 래일을 확신하게 된다.

본사기자 려명희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다음주에 진행되는 2018년-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부류축구련맹전과 2018년-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자 1부류축구련맹전일정은 다음과 같다.

16일

김일성경기장에서

남자 제비:배 불
평양:갈매기

녀자 제비:압록강

서산축구경기장에서

녀자 봉화산:평양

리명수체육단에서

녀자 리명수:소백수

22일

압록강체육단에서

남자 압록강:월미도

리명수체육단에서

남자 리명수:선 봉

4.25체육단에서

남자 4.25:기관차

녀자 묘향산:갈매기

내고향녀자축구선수단에서

녀자 내고향:경공업성

녀자 4.25:평양

오산력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가 다음주에도 계속된다.

16일(일요일) 오전 빙상판에서 대성산체육단과 평양철도국체육단사이의 빙상호케이 남자경기가 있게 된다.

삼지연군에서 여러 체육단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스키경기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딸리아인도주의협조단체 《싼떼쥐디오》공동체 위원장일행 귀국

임뻬리아쵸 마르꼬 이딸리아인도주의협조단체 《싼떼쥐디오》공동체 위원장과 일행이 14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2018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다음과 같다.

29일에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수 있다.

널리 자랑해주십시오

◇ 휴가군인이 보내온 편지에서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라는 부름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며 진정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주는 값높은 칭호이며 정가이다.

《우리 인민반장》이라는 부름도 그중의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는 인민들로부터 《우리 인민반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전 우리는 뜻밖에 한 군인에게서도 그런 부름을 듣게 되였다. 그는 표창휴가를 받고 고향에 왔던 조선인민군 군인 김경혁동무였다. 그는 초소로 떠나며 본사편집국으로 보낸 편지에서 오랜 세월 자기의 가정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정천구역 룡교1동 94인민반 반장 백복희동무의 소행을 전하면서 이런 부탁을 적었다.

《우리 인민반장어머니를 자랑해주십시오.》

오래전부터 천인모를 눈병을 앓고있던 김경혁동무의 어머니 홍문숙녀성이 완전히 실명된것은 김경혁동무가 7살 나던 해였다. 한창나이에 그것도 철부지 두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가정주부로서 뜻밖에 불행을 당한 홍문숙녀성은 자식들이 커갈수록 생각이 많았다.

바로 그러한 그의 두눈이 되여주고 자식들의 큰어머니가 되여줄 결심을 한 녀성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인민반장인 백복희동무였다. 백복희동무는 가정일도 돌볼데, 인민반장사업도 할데 드바쁜 속에서도 매일 그의 집을 찾아와 맨감이 떨어질세라, 부식물이 떨어질세라 마음을 썼다.

김경혁동무의 가슴속에는 오늘도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기의 바지주름도 잡아주고 동생의 머리도 빗어주던 인민반장의 모습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던 날 김경혁동무는 알 못 보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선뜻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때 평양역까지 따라나와 어머니걱정은 하지 말고 군사복무를 잘하라고 고무해주는 인민반장의 모습은 고향의 모습, 정깊은 또 한명의 친어머니의 모습으로 병사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게 되였다.

군사복무의 나날 순간이라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쓸세라 고향소식을 담은 편지들도 보내주고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도 보내주던 그 용심깊은 마음에 떠받들려 그는 병사시절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수놓아갈수 있었다.

우리 인민반장, 이 부름은 비단 그의 가정에서만 울려나오는것이 아니였다. 그에 대하여 김경혁동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인민반의 모든 세대들을 한 가정처럼 여기며 사랑과 정을 기울이는 우리 인민반장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거나 표창휴가를 받고 고향에 올 때면 의례히 인민반장어머니에게 선참으로 인사를 하는것이 관례처럼 되였습니다.》

하지만 김경혁동무는 고향에 들어설 때에도, 또 휴가를 마치고 초소로 떠날 때에도 인민반장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자기가 표창휴가를 왔다는것을 어느새 알고 토끼굴이며 벌식을 보내올 때에도 한달음에 달려가 쌓이고쌓인 고마움을 터놓고 싶었지만 그 충동을 가까스로 눌렀다.

그 사연에 대하여 김경혁동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아시는 훌륭한 병사가 되는 그날 인민반장어머니에게 떳떳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휴가군인이 보내온 편지, 여기에도 온 나라 인민이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박주향

시대의 명곡들과 더불어 영생하는 세계적인 작곡가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였던 김옥성동지의 불같은 열정의 세계를 더듬어보며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전진하며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길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들을 창작하여 력사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긴 음악가들이 적지 않다. 그들중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성장한 작곡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잊지 못하시며 세계적인 작곡가로 내세워주신 인민예술가 김옥성동지도 있다.

《녀성의 노래》, 《결전의 길로》, 《전호속의 나의 노래》,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를 비롯하여 그가 지은 노래들은 창작된 때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넘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속에서 삶과 투쟁의 진군가로 불리워지고있는 명곡들이다.

인민의 목소리에서 찾게 된 시대의 진리

모란봉극장에서 국립교향악단의 음악회가 진행될 때마다 의례히 지정곡처럼 울리는 명곡들중의 하나가 바로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이다.

청산벌에 설레이는 벼바다의 흐뭇한 전경, 일리로 나가는 농장원들의 모습, 절싼 솜씨로 벼가을을 하며 기뻐하는 그들의 웃음소리, 기운차게 돌아가는 탈곡기의 동음, 새납의 절묘한 소리와 농악무가락으로 흥취나는 풍년분배장의 장쾌한 광경, 이 행복을 우리 수령님께서 주셨다고 춤추며 노래부르는 청산리사람들의 감격이 흥겨운 관현악으로 울려퍼질 때면 누구나 다 시대정신이 약동하는 사회주의농촌의 한복판에 서있는듯 한 감흥을 받아안는다.

김옥성동지가 합창곡으로 창작한 이 명곡이 처음 울려퍼졌던 1960년대에 청산리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래가 세상에 나왔다고 환성을 터쳤고 오늘날 이 곡을 들어본 외국의 유명한 지휘자들도 정말 한번 지휘해보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다고 하고있다.

이 명곡의 창작과정은 현실을 당정책적안목에서 보는 창작가의 심장이 불길처럼 뜨거울 때, 그 현실속에서 울리는 인민의 목소리에서 진정을 새겨듣고 거기서 찾은 진리를 창작에 구현할 때 인민의 사랑을 받는 노래가 나온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는 작곡가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응당 인민의 사랑을 받는 명곡창작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투철한 관점을 지니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청산리정신으로 약동하는 농촌으로 뻐스를 타고갈 때에 그는 한 평범한 녀인의 말을 무심히 흘려듣지 않았다. 그때 울퉁불퉁한 농촌길에서 뻐스가 몹시 흔들렸는데 차에 타고있던 녀인은 험한 길을 탓한것이 아니라 《청산리가 흔들으니 뻐스도 덩달아 춤을 춰요.》라고 말하여 차안의 사람들을 즐거운 기분에 휩싸이게 하였다. 통상이 무심히 던진 녀인의 말에서 김옥성동지는 벌써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을 느꼈다.

아닌게 아니라 뻐스에서 내렸을 때 제일먼저 눈에 띄우는것은 지게에 부식토를 듬뿍이 담아진것도 성차지 않아 행주치마자락에도 부식토를 담아가지고 달리는 청산리녀인들의 모습이였다.

(저 걸음새, 저 달리는 모습은 그대로 청산리에 약동하는 당정책관철의 기상이다.)

그는 주저없이 오선지가 든 배낭을 논두렁에 벗어놓고 농장원들과 함께 지게를 지고 부식토를 협동벌에 냈다. 농장원들과 인츰 친숙해진 그는 설참의 오락회때에는 묘하게 굴렀다가는 멋들어지게 넘기는 청산리사람들의 《통강타령》 등 서도민요들을 빠짐없이 채보하였고 어느때인가는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부모들의 일손을 돕던 소년단원들의 무람없는 청원도 깊이 새겨들었다.

봄내, 여름내, 가으내 청산벌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것을 그대로 선률에 담고싶어 그는 창작적사색을 심화시켰다. 로동속에서 춤추고 노래부르는 농장원들의 락천적인 모습은 그대로 생활의 정서적인 음향으로 그에게 감수되였다. 하루는 한 농장원청년이 그에게 찾아왔다.

《풍년분배장에 울리는 나의 새납소리도 청산리에 대한 노래에 응당 있어야 하지 않을가요?》

김옥성동지는 농촌청년의 소박한 생각도 무겁게 받아들였다.

(청산리사람들은 변혁의 이 현실을 우리 가락에 대울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자면 빠르고 경쾌한 조선장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조선의 고유한 장단들과 그 변장단들이 몸에 푹 배도록 피땀내 노력하였다.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쿵짜자 쿵짝쿵— 하고 숟가락으로 장단을 쳤고 담벽을 칠을 때에도 손가락으로 장단을 쉬임없이 두드렸다. 현실체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온 방안 네 귀퉁이를 빙글빙글 돌면서 흥취나게 춤을 추며 장단을 쳐서 안해와 자식들을 깜짝 놀래웠다.

그렇듯 피타는 사색과 노력을 기울여 작곡을 끝냈지만 정작 시연회때에 그 장단이 잘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연주가들이 자기 악기를 놓고 한달 남짓이 휘모리장단을 익히게 한 다음 연주를 다시 하게 하여 끝끝내 관현악과 합창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를 민족적인 향취가 넘쳐나는 시대의 명곡으로 완성하여 내놓았다.

어찌하여 김옥성동지는 들끓는 현실에 뛰여들어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그렇듯 깊이 파고들었고 거기에서 울려나오는 음향을 진실하게 노래하고싶어 불같은 열정을 장그리 바쳤는가.

그것은 바로 거기에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받드는 우리의 혼연일체의 참모습이 있기때문이였다. 인민의 투쟁과 생활이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증명하고있기때문이였다.

오늘날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를 창작할 결심을 가지게 된것도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제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에게서 받아안았던 충격으로부터 시작되였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것이다.

추운 날씨에 홑옷을 입고 짚신으로 동여맨 신발을 끌며 최고사령부를 찾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올랐을 때 그는 사과나무묘목을 배낭에 지고 북쪽으로 걷는 한 농민을 우연히 만나 그 사연을 물은적이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김장군님이 주신 땅에 다시 무릉도원을 보란듯이 만들어야지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전쟁승리를 확신하는 그 평범한 농민의 목소리에서 수령님의 손길아래 파일항기가 넘쳐나는 사회주의락원의 래일을 그려보았고 그속에서 울려퍼질 인민의 행복의 노래선률을 먼저 들었다. 그때의 충격을 소중히 심장에 새기고있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청천지지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심장이 쿵쿵 높뛰음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리시여 청춘과원의 새 력사를 펼치시는 우리 수령님의 은덕을 세상에 전하지 못한다면 내 무슨 조선의 작곡가라고 말할수 있으랴.)

이렇게 되여 그는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를 사회주의무릉도원찬가로 창작하여 주체49(1960)년에 세상에 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짧은 노래한절에 어버이수령님의 부청천지지도의 생활력이 다 반영되여있다고 높이 평가하신 이 명곡의에도 《녀성의 노래》, 《전차병과 처녀》, 《만경대의 노래》, 《우리 집 토끼》를 비롯하여 그가 창작한 많은 노래들은 각계각층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우러나오는 당에 대한 신뢰와 당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칭송의 메아리로 오늘도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자연을 노래한 작곡가가 아니라 당정책을 노래한 작곡가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우리 일군들에게 김옥성동무가 지은 노래들은 지금도 흥얼흥얼 따라부르고싶은 명곡이라고 회고하시면서 음악예술부문에서는 인민이 누구나 흥얼흥얼 따라부를수 있는 명곡을 내놓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 어느때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관현악과 합창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는 아무리 들어도 싫지 않다고 하시면서 김옥성작곡가가 이 노래를 작곡하기 위하여 풍년든 청산벌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현실체험을 깊이있게 하였고 불타는 열정을 지니고 곡을 지었다고 그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는 어떻게 되여 그처럼 훌륭한 노래를 지을수 있었는가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늘 이렇게 외우군 하였다고 한다.

《나는 현실을 그대로 오선지에 옮겼을뿐이요. 내가 지은것이 아니라 현실이, 현실속에 사는 인민이 그렇게 하도록 한것이요. 명곡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속에 있소.》

당정책을 노래한 작곡가, 인민이 누구나 흥얼흥얼 따라부를수 있는 명곡을 지은 재능있는 음악가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추억속에 영생하고있는 그의 이 말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있다.

작곡가의 충실성은 어떻게 표현되여야 하는가. 그것은 인민이 좋아하는 명곡창작에서 나타나야 한다. 현실속에 주저없이 뛰여들라. 그속에서, 우리 수령님께 배움되고 우리 당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인 인민의 목소리에서 찾게 된 시대의 진리를 가장 진실하게 선률에 담을줄 알라.

그는 이 말속의 속대사를 우리 당정책을 노래한 시대의 명작들로 빛내인 조선로동당의 참된 문예전사이다.

작곡가가 되기 전에 혁명가가 되라

주체37(1948)년 4월 하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지휘에서 만나뵈올 때까지만 하여도 김옥성동지는 조선인민군협주단의 바이올린연주가였다.

남녀평등권법령발포 1돐을 맞으며 《녀성의 노래》를 작곡한 그를 대견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뜻깊은 그날 동무에게는 창작적재능이 있다고, 앞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노래를 창작하는 작곡가가 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그의 앞날을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방랑음악가의 신세를 한탄하던 자기를 조선인민군협주단의 바이올린연주가로 내세워주신것만도 분에 넘치는데 앞으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작곡가가 되라고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김옥성동지는 명곡창작으로 그이를 받드는 충대음악가로 살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작곡은 재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창작적신조였다.

군복을 입고 화선천리를 종횡무진하며 종군작곡가로 활동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는 그의 이 창작적신조가 검증되는 나날이기도 했다.

원래 그는 전기줄에 새들이 앉아있는 광경을 보고도 그것을 오선지의 음악기호로 여길만큼 음악적환상력이 풍부했고 기타와 바이올린, 하모니카와 피리로 세계명곡들도 능숙하게 연주하였으며 피끗 본 현상을 놓고도 그것을 곡으로 표현할수 있을 정도로 재능이 보통이 아니였다고 한다.

그러나 준엄했던 전쟁의 나날 그는 업계부에 들고앉아 고요속에서 천성적인 음악적감각과 재능으로 전선의 서정을 오선지에 올리지 않았다.

한알이 떨어지면 수류탄으로, 그것마저 떨어지면 돌로, 나중에는 온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원쑤를 쳐부시는 인민군전사들과 늘 함께 있으면서 조국애로 불타는 심장으로 《전호속의 나의 노래》를 비롯한 여러 노래를 작곡하였다.

그는 포연에 그슬린 오선지에 불타는 열정을 다 바쳐 창작한 선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민의 심장을 울릴 정도로 사상예술성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서슴없이 작품을 발표하지 않는 그런 순결한 창작적량심을 지닌 작곡가였다.

《결전의 길로》의 창작과정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가 《결전의 길로》를 작곡할 결심을 가지게 된것은 어느 한 무명고지전투에서 희생된 전우를 안고 복수를 다짐하던 병사들을 만난 때부터였다. 원쑤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소대장을 품에 안고 복수를 다짐하던 인민군전사들이 그를 붙잡고 부르짖었다.

《이런 때 달려가 원쑤를 족칠 돌격가를 지어주십시오. 복수의 노래를 맡깁니다.》

그는 인민군전사들의 피타는 목소리를 보통명사들의 청원으로가 아니라 당과 수령의 요구, 혁명의 요구로 받아들였다.

큰 충격을 받은 그는 그 자리에서 직진을 향해 돌진하며 웨치던 군인들의 만세의 함성부터 오선지에 옮겼다. 그다음은 희생된 전우의 원한 씻으려 원쑤격멸의 전투장으로 달려나가는 전투원들의 비장한 맹세를 담아 선률을 씌나갔다. 그러나 포연탄우를 뚫고헤치며 나아가는 용감한 우리 전사들의 기상,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는 그들의 투쟁모습이 어쩐지 금방 창작한 기본선률에서 뚜렷하게 안겨오지 않아 모대기였다.

서울과 평택, 수원에서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쟁 제1계단의 전략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인민군대가 남쪽으로 노도처 진격할 때 수많은 고지우에서 적을 무찌르며 적어놓았던 선률토막들, 어느 한 무명고지습격전투에 참가하였을 때 권총의 에비탄창까지 빈것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느꼈던 격렬한 감정, 원쑤들의 귀축같은 만행에 의하여 희생된 신천의 영혼들이 터졌던 피타는 절규도 다 반영하지 못한것 같아 몇달을 두고 고심하였다.

(이 노래는 결코 나 하나만의 심장의 웨침이나 어느 한 소대, 어느 한 병종 군인들의 복수가로만 되여서도 안된다. 철모망도 지뢰원도 웃으며 헤치고 불뚫는 적화구에 서슴없이 몸을 내대던 그 불굴의 용사들 모두의 심장에서 뿜어져나오는 멸적의 기상을 가슴후련하게 터쳐야 한다. 우리 인민의 천만 심장에서 끓어오르는 치솟는 적개심과 필승의 의지를 다 담은 그런 힘있고 장중한 노래가 되여야 한다.)

천만의 심장을 불러일으킬 노래를 서슬푸른 총창처럼 버려여가는 과정도 격렬한 전투나 다름없었다. 그는 작곡가이기 전에 조국의 운명을 관가름하는 준엄한 전장에 나선 병사였고 혁명가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올랐을 때에도 그는 사색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던 주체39(1950)년 12월의 어느날 조선인민군협주단 배우와 함께 산골마을의 숙소에 들었던 그는 쓰러진 전우의 원한 씻으려 비장한 결의를 다지고 돌격전에 나선 병사들의 심정이 훌륭한 악상으로 떠올라 창작에 열중하였다. 새벽 4시가 지나자 그는 너무도 흥분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솜저고리도 입지 않고 밖으로 나와 뒤산에 올라갔다. 눈이 강산같이 내린 북방의 한겨울 새벽기온은 몹시 낮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였다.

산중턱의 바위우에 앉아 박자를 맞추어 손을 흔들면서 입속으로 선률을 무르익혀나갔다. 그렇듯 비장한 체험과 축적, 사색을 거쳐 창작한 초고선률을 그 산중턱까지 따라올라왔던 조선인민군협주단의 배우가 한번 들어보자고 하였으나 도리머리를 저으며 다듬고 또 다듬었다.

《지금은 미완성이네. 천만의 심장에 끓어번지는 분노의 용암을 한꺼번에 터쳐야겠는데… 선률을 씹어보니 아직 화약내가 덜 나.》

일단 흥분속에 창작한 곡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작곡가도 선률을 다듬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음악기호나 고치며 미숙한 선률을 다듬는 창작의 한 공정이기 전에 전투였다. 혼자서 부르든, 열사람이나 백사람이 같이 터치든 천만의 사람들이 호응하며 바로 거기에 내 심장의 목소리도 합쳤다고, 그래서 가장 힘있고 장중한 그 울림과 함께 승리를 향해 질풍노도처 나간다는 강렬한 느낌이 그 선률에서 백막질 때까지 필사의 각오로 치르어야 하는 또 하나의 격전이였다.

그 격전장에 나선 병사인 그가 어찌 용맹하지 않을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 쏘련노래 《정의의 싸움》보다 더 좋다고 하시며 들을수록 멸적의 힘이 나고 승리의 신심이 솟구치게 한다고, 이 노래는 백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끄떡없이 영웅적으로 싸워이기고있는 우리 인민군대의 불굴의 기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후날 높이 평가하신 전시가요 《결전의 길로》의 선률 한소절한소절에 우리 군대의 멸적의 기상과 필승의 신념이 만장약되게 다듬기 위해 그는 이렇듯 피타는 사색과 열정을 기울였다.

누구나 이 노래를 한번 들으면 결전장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지 않고는 못견딜 정도로 그렇듯 천만의 심장에 거세찬 불길을 일으킬 돌격가를 다듬고 또 다듬은 김옥성동지는 재진격을 개시한 인민군대가 평양을 해방한 다음에야 합평회에 내놓았다. 그리하여 이 노래는 주체40(1951)년에 창작된것으로 력사에 기록되게 되였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자기가 창작한 선률의 정서적색채를 수십, 수백번이나 곱씹어 음미해보고 다듬으며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작품을 내놓기 위해 기울인 그의 불같은 열정과 깨끗한 창작적량심, 성실한 창작태도를 엿볼수 있다.

창작과제를 받아 적당히 작곡건수나 채우는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사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군인들의 목소리, 인민들의 목소리에서 스스로 자기의 본분을 자각하고 심장을 다 바쳐 당과 수령의 위대성,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격찬하는 명곡, 조국수호의 성전에 누구나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서게 하는 힘있는 노래창작에 온 심혈을 쏟고 기울인 당의 참된 문예전사가 바로 김옥성동지이다.

혁명에 필요한 노래를 창작하는 작곡가는 마땅히 혁명가가 되여야 하며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나온 노래일수록 그것이 혁명가의 신념을 더 굳세게 벼려주는 사상의 무기가 되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그는 이렇게 증명하였다.

심장의 언어인 노래의 작곡도 재능이 아니라 애국으로 불타는 혁명가의 심장으로 해야 하며 그렇게 나온 곡이 천만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을 영웅적투쟁에로 떠밀어주는 기치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그는 자기의 창작실천으로 시대와 력사앞에 보여주었다.

작곡가이기 전에 혁명가였던 김옥성동지가 4.0대의 한창나이에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장의식장에서는 그가 창작한 다른 명곡들과 함께 《결전의 길로》가 또다시 격조높이 울리였다.

그 잊을수 없는 노래의 선률이 울릴 때 함께 전화의 불비를 헤쳐온 한 전우는 그의 명전에 다가와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부르짖었다.

《옥성동무, 동무가 지은 〈결전의 길로〉가 울리고있습니다. 우리 전사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원쑤와의 관가리결사전에로 달려나가게 한 동무가, 숱한 영웅을 낳게 한 동무가 이렇게 눈감고 누워있다는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소. 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시오.》

육체적삶은 끝났어도 위대한 태양의 품이 있기에 전사의 생은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는 그의 노래들과 더불어 그는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 혁명대오에 서있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했던 그를 잊지 않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연단에서 개회사를 하시면서 총결기간 세상을 떠난 혁명전사들과 여러 인사들의 이름과 함께 김옥성동지의 이름도 불러주시여 영생의 대오에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대의 명곡창작으로 당과 수령을 받든 그를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음악명인들의 전렬에 내세워주시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를 종군작곡가로 형상한 예술영화를 만들게 하시고 그의 생일 100돐을 맞으며 기념음악회를 진행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 * *

우리 당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작곡가,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투쟁의 노래, 시대의 명작들을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축복속에 당정책을 노래한 작곡가, 세계적인 작곡가로 영광의 최절정에 오른 그가 세상을 떠난지도 이제는 어언 반세기가 넘는다.

허나 김옥성동지가 창작한 명곡들은 오늘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벅찬 진군길을 타고치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투쟁의 무기로, 혁명의 정신적량식으로 되여 이 땅우에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그 노래들을 힘차게 부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백 성 근

동맹조직의 전투력을 높이 떨치도록

함경북도녀맹위원회에서

녀맹돌격대활동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녀성들의 충정의 대중운동이다.

함경북도녀맹위원회에서는 녀맹원들의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열의와 구체적실정에 맞게 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맹조직들은 광범한 녀성들을 발동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대중운동을 조직전개하며 녀맹돌격대활동도 벌려야 합니다.》

지난 기간 도녀맹위원회에서는 녀맹돌격대활동을 벌림에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생산과 전설로 들끓는 전투전장들에 달려나가 자랑스러운 위훈을 새기였다. 올해 여름에도 도소년단야영소건설장에서 많은 면적의 벽제미장과 타일붙이기를 진행하고 수천㎡의 성토공사와 자갈채취를 하였다.

지난 7월에 있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는 도안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뜨거운 충정과 애국적열의를 폭발시킨 중요한 계기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녀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거룩한 발자취가 수놓아진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건설장에서 동맹조직의 전투력과 위력을 높이 떨칠 작전을 펼치였다. 도녀맹위원회일군들은 회령시, 어랑군을 비롯한 시, 군녀맹조직들에 내려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깊이 새겨주면서 녀맹원들의 정신력을 앙양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렸다.

지난 9월 중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돌격대에 탄원한 1 000여명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어랑천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갔다.

들끓는 전투장에 파지를 정한 도녀맹위원장을 비롯한 녀맹일군들은 긴장되고 동원된 분위기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인민군대식으로 박력있게 하였다. 그들은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방송선전, 구두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선전선동을 공세적으로 전개하였다.

김책시, 온성군, 길주군, 화대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정치사업에 고무된 녀맹돌격대원들은 애국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럼수록시, 군당책임일군들은 팔향언제건설장에 정상적으로 나가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그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없이 일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올릴 영광의 그날을 앞당길 열망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그리하여 두달 남짓한 기간에 2만 수천㎥의 자갈을 채취하여 팔향언제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함경북도녀맹위원회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고무된 녀맹원들은 돌격대활동을 과감히 벌리며 오늘의 증산돌격전에서 동맹조직의 전투력과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승 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방직설비의 현대화를 위해 참조적지혜를 합쳐간다.

—대학에서—

—한덕수정양경공업종합대학 리 동 규 책음—

벽동군 성하리당위원회에서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올해농사를 결속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다음해농사차비를 위한 전투에 농장원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당초급일군들은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농장원들속에 깊이 인식시켜 농사차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는 또한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의 정치사업에 고무된 농장원들은 분조앞에 제기되는 어려운 과업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며 다음해 농사차비를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전 준 갑

보람찬 로동속에 꽃피는 희망

평성시연료사업소 로동자 윤정아동무

우리가 윤정아동무에 대해서 알게 된것은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결과가 게재되군 하는 《문학신문》지면에서부터이다.

지난해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조직된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에 《백두의 노래가 키운 처녀》라는 제목의 시초를 투고하여 2등으로 당선되였던 그가 올해에는 시초 《나는 탄부의 딸이다》를 훌륭히 창작하여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에서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니였던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을 한계단 높이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전문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군중문학창작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알고보니 이제 겨우 20대 초엽의 윤정아동무는 평성시연료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사랑하는 문학통신원이였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 갈 곳도 많고 희망도 컸지만 보람찬 로동생활을 체험하고싶어 이곳 연료사업소에 오게 되였다는 기특한 처녀, 자기들의 생활을 작품에 담을수는 없는가고 하는 직장사람들의 소박한 말속에서 시창작의 사명에 대하여 다시금 절실히 깨닫게 되였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였다.

지난 몇해사이에 《조선문학》, 《청년문학》을 비롯한 잡지들과 신문들에 게재한 《봄버들아》, 《임대탄원서》, 《푸른 숲아》와 같은 시들도 그러하지만 《전차운전공과 굴진공들》, 《새 기술혁신안》, 《나는 연료공급원입니다》를 비롯한 그의 시작품들은 들끓는 현실과 자기의 생활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형상을 심화시킨것으로 하여 생신하고 열정적이면서도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시초 《나는 탄부의 딸이다》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실지 그의 아버지는 탄부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작품의 서정적주인공이 되여 《나는 탄부의 딸이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게 된것은 바로 탄광생활에 대한 깊은 체험과 그로부터 산생된 열렬한 창작적흥분이 있었기때문이다.

아름다움은 빛과 색으로
말하네
무지개빛, 노을빛, 푸른빛…
그런데 거기엔 왜 없을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검은빛

수수천년 어둠속에 살아
검은빛밖에 남지 않은
나의 사랑
…

탄부들이 매일 캐내는 석탄을 두고 이렇듯 따뜻한 서정을 담아 노래한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쉬이지 않는 동발》, 《〈오누이〉 이야기》, 《막장단상》 등 시초에 나오는 모든 시들에는 탄광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이 아주 진실하고도 여운이 있게 반영되여있다. 이 시초는 시안의 주민들에게 뱃감을 보장하는 연료사업소종업원으로서 윤정아동무가 천성청년탄광을 비롯한 여러 탄광에 다니면서 짬짬이 완성하였다고 한다. 로동자시인의 열정이 진하게 슴배인 시초는 탄부들과 직장사람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오늘 우리 당이 군중문학창작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렇게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게 하는 훌륭한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려는데 중요한 의도가 있다.

격동하는 조국의 현실과 자기 일터에 대한 사랑을 아름다운 서정에 담아 노래하며 창작의 푸른 꿈을 활짝 꽃피워가는 문학통신원 윤정아동무의 앞날이 기대된다.

본사기자 리 건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한생

우리 나라를 어려차례 방문한 영국의 한 인사가 몇해전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인민의 참된 아들로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검박하게 생활하시며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하시였다. 또한 늘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면서 김일성주석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시여 조선로동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좌우명이였던 이민위천을 철칙으로 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신조를 지니고 계시였다.》

필자는 글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멀고 험한 최전연초소들을 찾으시여 인민군군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데 대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불면불휴의 로고와 애국헌신으로 마련해놓으신 락원에서 조선인민은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있다. 나는 어려차례 조선을 방문하면서 김정일동지께서 베푸신 크나큰 인민사랑에 대하여 느낄수 있었다.

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공장과 기업소, 문화휴식터들이 훌륭히 일떠섰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과 헌명한 령도의 결과로 마련된것이다. 김정일동지의 무한한 헌신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철의 신념에 뿌리를 두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보다 더 훌륭한 인민은 세상에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으시였고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고 하시며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확신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인민을 하늘처럼 믿으시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인민의 참된 아들이시다.》

력사에는 인민을 위한다고 하던 정치가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달리는 렬차에서 순직하신 우리 장군님과 같으신 그런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인터네쎄리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은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 첫자리에 놓으시고 한평생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이렇게 격정을 토로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생애는 조선혁명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한생이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에 바쳐진 빛나는 한생이였다. 그이는 전생애를 인민을 위해 다 바치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그이처럼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분은 일찌기 없었다.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이것을 어찌 인디아의 한 인사의 격정이라고만 하랴.

쏭고통신사도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인민을 위한 한생》이라는 표제아래 어러 제목의 글을 련접하였다.

글들은 김정일령도자의 고귀한 생애를 돌이켜보는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 그것은 《인민》이다, 그이의 한생은 한마디로 인민을 위한 한생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면서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가장 큰 락으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한평생을 격조높이 찬양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수리아의 사나통신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헌신하시였다, 그이는 인민을 한품에 안아 온갖 사랑을 부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고 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심은 몇해전 로씨야신문 《올라지보스또크》에 실린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라는 제목의 글에도 어려있다.

신문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서거하신 후 흘리온 나날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그이께 변함없이 충실한 숭고한 도덕의리의 나날이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업적을 빛내여왔다, 이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류자주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한없이 고결한 도덕의리심과 충정의 표시이다, 조선인민은 사회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 거창한 변혁을 이룩하였다, 령도자의 구상과 유훈을 완전무결하게 실현하려는것은 조선인민의 투철한 신념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지금 조선에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뿌려주신 강성번영의 귀중한 씨앗들이 알찬 열매로 주렁지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귀중한 씨앗들을 뿌려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칭송은 오늘 세계중심에 우뚝 서서 존엄높은 강국으로 빛을 뿌리는 우리 조국의 위상과 더불어 더욱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행성에 굴이치는 위인칭송열기, 이것은 곧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출위인상에 대한 매혹의 분출이다.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 지는 절세위인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는 세계방방곡곡에 끝없이 차넘치고있다.

얼마전 페네수엘라 야라꾸이주립법리사회 위원장은 이렇게 격정을 터쳤다.

《조선에서 사회주의가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기치를 굳건히 고수하시고 그 생활력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였기때문이다. 오늘 조선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드팀없이 계승해나가시는 또 한분의 절출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조선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귀감이며 희망의 등대이다.》

본사기자 박예경

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숭고한 영상

여러 나라 신문 글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글을 게재하였다.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 마싸이》 6일부는 《자주정치의 거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자주정치의 거장이시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조선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시였다. 지난 세기 말엽 여러 나라에서 련이어 사회주의가 좌절될 때 조선이 끄떡도 하지 않은것은 그이의 투철한 자주로선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하시였다.

그이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는 국제무대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한 위력한 정치방식이였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은 국제사회에서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인류는 자주정치의 거장이신 그이의 풍격을 깊이 전해갈것이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 7일부는 《인민의 령도자 김정일》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련접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시였다. 인민의 리익을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그이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한없이 소박하고 겸손하며 소탈한 인민적품성을 지니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수천척지하막장에도 들어가시고 험한 포전길도 걸으시였으며 인민들의 이야기도 허물없이 들어주시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탁월한 령도력으로 조선을 인민대중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참다운 인민적령도자로서의 그이의 숭고한 영상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것이다.

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 포크》 9일부는 《헌신의 마지막해》라는 제목으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사랑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칭송하는 글을 실었다.

네팔단체들 련합모임 진행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회고 네팔전국위원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주체사상연구 네팔사회주의기자연단,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 네팔지력쟁생연구회 련합모임이 7일에 진행되였다.

전 네팔정부 토지개혁 및 관리상,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비롯하여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의 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돐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7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1돐에 즈음하여 친솔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출판보도물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회고모임, 토론회, 영화감상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를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심의 심판에 도전하는 추악한 망동

최근 《자유한국당》것들이 서울구치소에 갇혀 재판을 받고있는 박근혜역도의 석방문제를 들고나오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김무성을 비롯한 비박계패거리들은 박근혜에게 《중형을 선고한것은 잘못》이라느니, 《석방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다. 이자들은 일부 친박계인물들과 함께 박근혜에 대한 불구속재판을 요구하는 《결의안》이라는것까지 고안해내고 역도의 석방을 당론으로 채택할것을 주장해나서고있다.

한때 《박근혜탄핵은 민중의 요구》라고 떠들며 역도의 탄핵음직임에 동조해나섰던 《자유한국당》의 비박계가 지금에 와서 박근혜석방문제를 들고나오며 생색을 내고있는 리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은 친박계를 끌어당겨 《보수대통합》주도권과 당권장악의 야욕을 실현해보려는것이다. 남조선언론들도 《자유한국당》의 비박계가 현시점에서 박근혜석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극성을 부리며 뛰여다니는것은 역도패거리들을 저들에게 끌어당기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평하고있다.

《자유한국당》것들이 박근혜역도의 석방을 거리낌없이 제치며 이 문제를 내들고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은 남조선의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력사의 심판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더러운 정치적야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제손으로 매장했던 산송장을 파헤쳐 씨먹는것도 서슴지 않는 보수패거리들의 추태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다.

가관은 박근혜역도의 석방에 극성을 부리는 비박계패거리들의 움직임에 대해 친박계패거리들이 도리여 혹각을 곤두세우며 소란을 피우고있는것이다. 이들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구속하는데 앞장섰던자들이 이제 와서 석방을 위한 《결의안》채택을 주장하고있는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하면서 《탄핵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고아대고있다. 한편 친박계패거리들은 박근혜가 석방되는 경우 지지세력을 긁어모아 새로운 당을 만들 생각까지 하고있다.

다 죽게 된 박근혜의 석방문제를 놓고 벌리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싸움질은 썩은 고기를 놓고 서로 물고뜯는 굶주린 아수무리를 방불케 하고있다. 박근혜와 같은 감옥귀신을 《보수대통합》과 당권장악이라는 정치적야욕실현의 보물단지로 여기지 않으면 안되게 된 《자유한국당》의 처지도 가련하기 그지없다.

민족반역과 패륜패력으로 악명높은 박근혜와 역도를 되살려 저들의 리속을 채우려고 발광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간상배들은 다 갈고갈은 력사의 죄인들이며 한시바삐 매장해버려야 할 역적무리이다.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민심을 거역하며 파거의 암흑시대를 되살릴 개꿈만 꾸고있는 악의 무리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자유한국당》의 더러운 정체를 폭로하면서 보수패당을 단죄규탄하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남조선단체 사법롱락주범들에 대한 처벌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랑승태 사법롱단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5일 《국회정론관》에서 사법롱락주범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박병대, 고영환과 같은자들이 지난 기간 법판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정권》에 복무하고 직권을 람용하여 수많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고 밝혔다. 사법롱락은 과거 《정권》의 대표적적폐로서 박병대, 고영환과 함께 주범인 이전 대법원 원장 랑승태는 즉시 구속되여야 한다고 회견문은 주장하였다. 《국회》는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회견문은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6.12싱가포르공동성명리행에 나설것을 미국에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6일 미국, 카나다, 유럽, 아시아, 오세안주지역의 71개 해외동포단체들과 미국의 저명한 인사 59명, 정화단체, 민권단체 등 8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명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성명은 북남수뇌상봉에서 합의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조미수뇌상봉에서 채택된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남수뇌상봉과 조미수뇌상봉에서 이룩된 합의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정화체제를 구축하는 토대로 된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북과 남이 비약적인 관계개선을 이룬데 대해 지지환영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북의 조치들에 상응하여 미국도 6.12싱가포르공동성명리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북미간 정화협정체결만이 조선반도와 미국본토에서의 핵전쟁위기는 물론 모든 전쟁가능성과 무력충돌위험을 막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정화체제를 구축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대북제재》와 북에 대한 《테로지원국》재지정해제 등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단체 민주화실현에 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5일 대전에서 민주렬사들을 추모하는 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민주화를 실현하고 자주통일로 민족의 번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 민중이 단결하여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초불항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민주렬사들의 뜻을 이어 민주화실현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남조선신문 《보안법》폐지를 주장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11일 사설을 통해 조선반도정화와 인권보장은 《보안법》폐지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설은 사회의 렬악한 인권실태는 《보안법》폐지를 요구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민족의 분렬과 동족대결의 종식문제도 《보안법》의 존폐여부와 긴밀히 련계되였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보안법》이 1948년 12월 조작된 때로부터 지난 70년간 권력의 지배도구로 리용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보안법》에 의한 간첩조작, 《종북》몰이, 색갈론 등 그 폐해는 막대하다고 하면서 유엔과 국제대사령도 폐지를 권고해왔다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보안법》폐지는 더는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뢰물을 받은 《자유한국당》을 폭로

11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이 최근 부정부패행위로 사회적론난을 빚어낸 유치원총련합회로부터 뢰물을 받은 사실이 폭로되고있다.

방송은 유치원총련합회가 지부내에서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냈다고 하지만 련합회가 사립유치원들에서의 부정부패를 감독통제하도록 하는 유치원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에 뢰물을 주었다는 여론이 높아가고있다고 전하였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방해책동으로 아직까지 유치원관련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유치원총련합회 회원들은 집단적으로 야당의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있다고 방송은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미국은 인권에 대해 론할 도덕적권한이 없다고 언명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미겔 마리노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가 1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인권에 대해 론할 도덕적권한이 없다고 언명하였다.

미국은 세계도처에 전쟁과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인권을 마구 유린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자기 나라에 대한 경제, 상업, 금융봉쇄를 잔인하고도 대규모적인 인권유린행위로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이 인권문제에서 이중기준을 가지고 위선적이며 불성실한 립장을 취하고있으며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들을 체계적으로 무시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체조련맹 새로운 채점지원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

국제체조련맹이 최근 새로 개발된 채점지원체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2020년 올림픽경기대회 체조종목의 일부 세부종목들에서 이 체계가 보조수단으로 리용된다.

선수의 동작을 립체적으로 해석하는 《3D페이자수감부》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체계는 선수에게 페이자빛을 쪼여주어 움직임을 해석하며 1 300가지이상의 기술동작을 기억시킨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기술동작의 이름과 회전수, 동작의 정확성 등을 판별한다.

국제체조련맹 위원장은 이 체계를 도입하면 채점을 하는 모든 체육종목에서 제기되던 심판의 공정성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으로는 자동채점체계가 실시될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해에 세계이주민수 증가

지난해에 세계적인 이주민수가 2억 7 700만명에 달하였다. 그것은 2013년보다 약 20% 늘어난것이라고 5일 국제로동기구가 밝혔다.

피난민들의 불행한 처지

올해에 들어와 12월 9일현재까지 지중해에 빠져 죽거나 행방불명된 피난민들의 수가 2 160명에 달하였다.

11일 국제이민기구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과거에 대한 태도를 통해 본 두 전범국

최근 도이췰란드의 뮨스터지구재판소가 94살 난 이전 에쓰에쓰부대 성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뽈스까의 어느 한 집단수용소에서 복무하면서 수백건의 살인사건에 가담하였다고 한다. 기소장을 통하여 그가 복무하던 집단수용소에서 에쓰에쓰부대가 감행한 만행들이 날날이 폭로되였다.

그에 의하면 수용소의 독가스실에서는 1944년에만도 100여명의 뽈스까사람들이 살해되고 그후에는 70여명의 무상당한 쏘련군포로들이 목숨을 잃었다.

집단수용소에서는 1944년 8월부터 그해말까지 수백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하였다. 또한 수용소에서는 몸이 병약하여 일할수 없는 약 100명의 포로를 《신체검사》의 명목으로 모아놓고는 총살해버렸다.

그뿐이 아니다. 험악한 수용소의 환경은 많은 포로들이 장티브스를 비롯한 질병에 걸려 죽게 한 원인으로 되였다.

피고는 자기가 이 수용소에서 복무한데 대해 인정하였다.

검사측은 피고가 에쓰에쓰부대에서 복무한것자체가 범죄자로 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전범국인 파쑈도이췰란드와 일본의 주요전범자들을 처벌한 국제군사재판들이 있은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도이췰란드가 오늘날 전범자를 재판한것은 과거의 죄악을 제꿋이 청산하고 그와 결별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반인륜범죄에는 시효가 없으며 반드시 응당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도이췰란드는 국제군사재판이 있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시종일관 과거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고 배상해왔다. 나치스에 의한 전범죄를 덮어두지 않고 외부에 계속 공개하고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박물관들에 나치스의 만행자료를 전시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있다. 교육기관들에서는 력사강의에 나치스의 범죄내용이 반드시 언급되도록 하고있다. 텔레비죤방송과 토론회들에서도 이를 취급하고있다.

도이췰란드는 그러한 조치들이 나치스가 저지른 반인륜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라고 하고있다.

그러나 같은 전범국으로서 과거청산문제에서 도이췰란드와는 상반되게 처신하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도이췰란드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고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전범국이다. 그런데 일본의 태도는 어떠한가.

일본집권층은 국제사회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도죠 히데끼를 비롯한 특급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되여있는 야스구니진자에 대한 집단참배놀음을 벌리고 공물까지 봉납하고있다. 또한 전범자들의 죽음을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희생》으로 보사하고있다.

일본집권자는 전범자들에 대하여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판결은 전승국들이 내린 결정으로서 국내법의 견지에서는 법인이라고 말할수 없다.》는 견해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의 극우익보수세력도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전승국의 론리로 이루어진 날조된 재판이기때문에 국제법상 무효이며 특급전범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재판에서 기소된 사람들이므로 전쟁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있다. 이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여온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은 미화분식, 은폐, 축소의 범위를 벗어나 전면외곡, 전면부정에로 이어지고있다.

일본군국주의마차는 미친듯이 질주하고있다. 모든 군종, 병종을 가지고있으며 선제공격능력을 보유하고있는 《자위대》는 군사작전범위를 태평양만이 아닌 인디아양으로까지 확대하고있다. 일본의 군사비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있으며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서》와 장거리순항미싸일의 도입까지 시도하고있다.

헌법개악움직임도 가속화되고있다. 헌법만 개악하면 일본은 전쟁국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된다.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아시아를 무른 메주밟듯 하던 옛시절로 되돌아가자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에 비낀 도이췰란드와 대조를 이루는 일본의 모습이다.

본사기자

국제적규탄을 받고있는 중동평화파괴자

얼마전 유엔총회에서 중동정세를 계속 악화시키고있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팔레스티나와 수리아를 지지하는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결의들에서는 꾸드스를 유태화하려는 이스라엘의 책동을 규탄하면서 이와 관련한 시도들을 끝장낼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자기 령토를 가지려는것은 팔레스티나인들의 빼앗을수 없는 권리라고 하면서 팔레스티나문제의 정화적해결을 호소하였다. 유태복고주의정권이 골란고원을 강점하고 비법적인 건설을 진행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지역에서 물러갈것을 요구하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티나가 제출한 결의안이 통과되였다.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의 정착활동을 규탄하고 정화를 보장하는 문제가 언급되여있다고 한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팔레스티나를 적극 지지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최근시기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서 불법무도한 만행을 일삼으면서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있다. 지난 11월 이스라엘고등재판소는 동부꾸드스에서 유태정착을 승인한 후 700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을 철거시키도록 하였다.

잇달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동부와 이스라엘사이의 정전선에서 집회를 벌리고있는 팔레스티나인들에게 무기를 사용하여 약 100명을 부상시켰다.

이뿐이 아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티나인들의 봉사시설과 살림집들을 마구 허물어버리고있다. 살림집들을 수색하며 란동을 부리던 끝에 그에 항거해나선 청년을 총으로 쏘아 무참히 살해하는 범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개교를 앞둔 팔레스티나인학교를 허물어버리는 극악한 만행도 저질렀다.

한편 수리아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만행이 계속되고있다.

레바논신문 《나하르네트 뉴스페스크》가 보도한데 의하면 지난 11월 29일 이스라엘전투기들이 수리아남부와 디마스끄시주변일대의 군사대상물들을 타격하였다.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디마스끄남부에 위치한 주요대상물들을 향해 수백차례의 공습을 감행하였다.

유엔총회에서의 이번 결의채택은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망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의 반영이다.

한 연설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를 강점한지 50여년이 된다고 하면서 국제공동체가 팔레스티나인민과의 련대성을 실천으로 옮길것을 호소하였다.

유엔주재 팔레스티나상임옵써버대표는 이스라엘이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은 안중에도 없이 요르단강서안지역과 동부꾸드스에서 정착촌확장, 살인, 토지강탈 등 범죄행위들을 계속 저지르고 팔레스티나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고있으며 두개국가해결책의 실행을 체계적으로 막아나서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수리아외무 및 이주민성은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발송하여 유엔과 안전보장리사회가 이스라엘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요르단, 리비아, 로씨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의 가자지역과 수리아의 골란고원 등 비법적으로 강점한 령토에서 당장 물러가며 군사적공격과 가자지역에 대한 봉쇄, 팔레스티나피난민들에 대한 협조물자수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1967년의 국경선에 따른 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팔레스티나독립국가의 창설에 강력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령토평창야망에 환장이 되여 중동지역에서 온갖 범죄행위를 저지르고있는 이스라엘을 규탄배격하는 국제적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원준

과학기술소식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바다가식물들

어느 한 나라의 대학연구사들이 내놓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망그로브와 같은 바다가식물들이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록색생태계로 알려져있는 바다가식물들은 빨리 자랄뿐아니라 물이 스며든 주변토양들에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질로 전환하여 축적하는 능력도 가지고있다. 따라서 망그로브와 같은 바다가식물들은 다른 생태계들이 할수 없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저장할수 있다.

이번에 연구사들은 해안선이 긴 나라들이 바다가식물생태계에 의존하면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일수 있다는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방출량순위에서 50위권에 속하는 나이제리아와 뽈롬비아, 방글라데슈의 경우 2014년에 망그로브숲을 리용하여 이산화탄소방출량을 1%이상 줄였다고 주장하였다.

망그로브숲에 대한 관리를 잘하지 못한 일부 나라들에서는 그 력을 보지 못하고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망그로브숲이 있던 토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다나니 그속에 저장되였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방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4년에 망그로브숲에 대한 채벌로 인해 이산화탄소방출량을 0.4%밖에 줄이지 못하였다.

연구사들은 망그로브숲에 대한 채벌을 중지하면 이 나라들에서도 이산화탄소방출량을 각각 1.6%, 2.6% 줄일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록색생태계를 보존하고 복구하는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줄일수 있는 직접적인 방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ㄱ-181198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